



2012 Annual Report

110-032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89 세종마을 푸르메센터 4층 푸르메재단
Tel. 02.720-7002 Fax. 02. 720-7025 www.purme.org



푸르메재단 희망이야기

2012 Annual Report



Contents



2012 중점사업 소개

1) 감사의 글	04
2) 세종마을 푸르메센터	06
• 센터 소개 및 의의	
• 시설안내	
• 건축 및 개관식	
3) 푸르메재활센터	09
• 푸르메재활의원 소개 및 이용분석	
• 푸르메치과 소개 및 이용분석	
• 푸르메한의원 소개 및 이용분석	
4) 종로장애인복지관	18
• 종로장애인복지관 소개	
• 종로장애인복지관 이용분석	
5) 과천시장애인복지관	21
• 과천시장애인복지관 소개	
• 과천시장애인복지관 이용분석	
6) 종로아이존	24
• 종로아이존 소개	
• 종로아이존 이용분석	
7) 행복한 베이커리&카페	27
• 행복한 베이커리&카페 소개	
• 행복한 베이커리&카페 이용분석	



2012 배분사업 & 캠페인

1) 배분사업개요	32
• 푸르메배분사업	
• 2012, 2013 지원사업 현황	
2) 의료·재활지원사업	35
• 장애어린이 의료비 지원사업	
• 장애어린이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 치과치료비 지원사업	
• 한방치료비 지원사업	
3) 자립지원사업	42
• 보조기구지원사업	
4) 문화지원사업	44
• 문화나눔 '점프'	
• 장애가족 여가생활지원 '따로 또 같이'	
5) 미소원정대	46
6) 선과 함께하는 '만원의 기적'	48
7) 기타 행사 및 이벤트	52

2012 푸르메재단 소개

1) 지금의 푸르메가 있기까지	56
2) 연 혁	58
3) 이사진	60
4) 홍보대사	62
5) 살림살이	64
• 2012 결산보고	
• 2012 기부현황	
• 기금소개	
6) 기부자명부	67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	73
------------	----



	· 감사의 글	04
	· 세종마을 푸르메센터	06
	· 푸르메재활센터	09
	· 종로장애인복지관	18
	· 과천시장애인복지관	21
	· 종로아이존	24
	· 행복한 베이커리&카페	27



함께 꿈꾸는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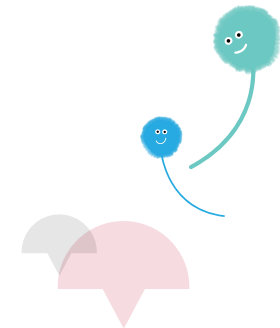


많은 후원자님께서 정성어린 기금을 푸르메재단에 보내주셨습니다.
재단에서는 이 돈을 아끼고 아껴서 처음으로 내 집을 갖게 됐습니다.
꿈꾸던 사업을 할 수 있는 집을 갖게 되었을 때의 기쁨을 어디에 비하겠습니까.
그곳이 바로 지난해 여름 효자동 네거리에 문을 연 푸르메재활센터입니다.

매일 아침 이곳을 찾는 꼬마들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습니다.
처음 올 때는 병원을 찾았을 때처럼 무서워하는 표정을 짓지만
2층에 마련된 놀이터를 보고는 마치 유치원에 온 듯
신나게 노는 모습을 바라보는 일은 저에게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행복한 순간입니다.

가난 때문에 혹은 치료받을 때를 놓쳐서
하루 종일 차가운 방안에 누워있는 꼬마들이 많습니다.

먹고 입는 것부터 평생을 부모에게 의지하면서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가는 꼬마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기도합니다.



푸르메재단은 이 꼬마들을 하루빨리 잘 치료해서
우리사회를 젊어지고 갈 씩씩한 젊은이들로 만들겠습니다.

정신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힘들고 조금 부족한 사람도 그를 이해하고 함께 도와주려는
다른 사람들과 손잡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그런 세상을 아름다운 뜻과 마음을 가진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잡아주실 거지요.

푸르메재단 이사장

세종마을 푸르메센터

3,000명이 만든 기적,
그 기적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 서비스 이용 시간 : 월~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치료서비스 비용 : 건강보험의 본인부담, 비급여 항목(비용은 상이)



세종마을 푸르메센터가 시민의 기부와 기업의 사회공헌 기금으로 지어져 지난 7월 문을 열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 기부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로 기록되었습니다. 종로장애인복지관과 푸르메재활센터, 종로아이존, 행복한 베이커리&카페까지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세종마을 푸르메센터. 장애인의 삶을 돌보는 의료와 복지서비스가 결합되고 자립을 위한 일자리까지 마련하는 통합센터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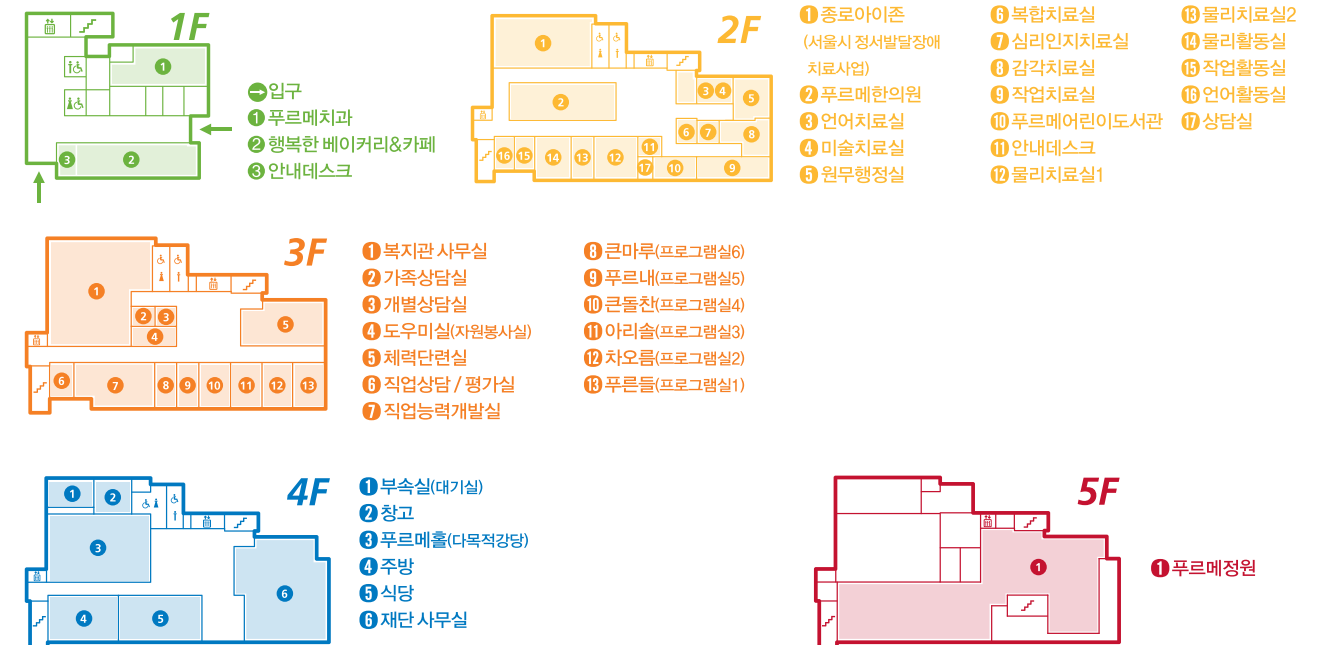
이곳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의료서비스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교양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전시, 공연, 각종 행사 등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면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벽을 허물고 함께 어울려 사는 지역 공동체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위치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89 (신교동 66)
건물개요	지하 4층, 지상 4층, 대지 571평, 연면적 2,904평
공사기간	2011년 8월 16일 착공 ~ 2012년 9월 17일 완공 (13개월)
모금액	81억 6천만원 (약 3,000명 기부참여)
집행금액	75억 9천만원
잔액	5억 7천만원 (전액 시설 운영비 및 장애아동 재활치료비지원으로 사용)
부족액	3억 5천만원 (추가 의료장비 구입, 저소득 장애아동 재활지원을 위한 치료비)
주요시설	• 종로장애인복지관 : 성인재활치료, 직업치료, 스포츠문화여가, 교육재활 • 푸르메재활센터 : 재활의원, 어린이치료실, 한의원, 치과, 바우처치료실 • 행복한 베이커리&카페 : 지적장애인 청년일자리 • 종로아이존 : 중증 발달/자폐성 장애아동 치료실

시설안내



행복한 “우리 집” 집들이

모두가 우리 집의 주인공이었습니다.

2012년 9월 1일, 세종마을 푸르메센터는 200여 명의 희망으로 북적였습니다. 지역과 기업, 3,000여 명의 시민들이 힘을 합쳐 지어낸 세종마을 푸르메센터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곳곳에 걸린 ‘마음을 이어 만든 큰 울타리, 3천명의 기적’이라는 현수막이 고마운 기부자님을 맞이했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005년 재단 설립 이후부터 줄곧 기부 해주시던 분, 저 멀리 부산에서 달려오신 분, 센터에서 치료 받았던 장애어린이들까지... 그리고 오실 수는 없었지만 마음으로 함께해주신 3,000명의 손을 일일이 잡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분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을 만들기 위해 힘썼던 시간들이 스쳐지나갔습니다.

김성수 이사장은 “기부자들이 지어서 누구를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우리 집입니다. 감사하거나 축하 받을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를 축하하는 날입니다.”라고 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기본에 충실하고 쾌적한 공간,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 “우리 집이 생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곳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갖게 됐습니다.

전해주신 귀한 기금이 장애어린이와 성인장애인들에게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기적이 됐습니다. 믿고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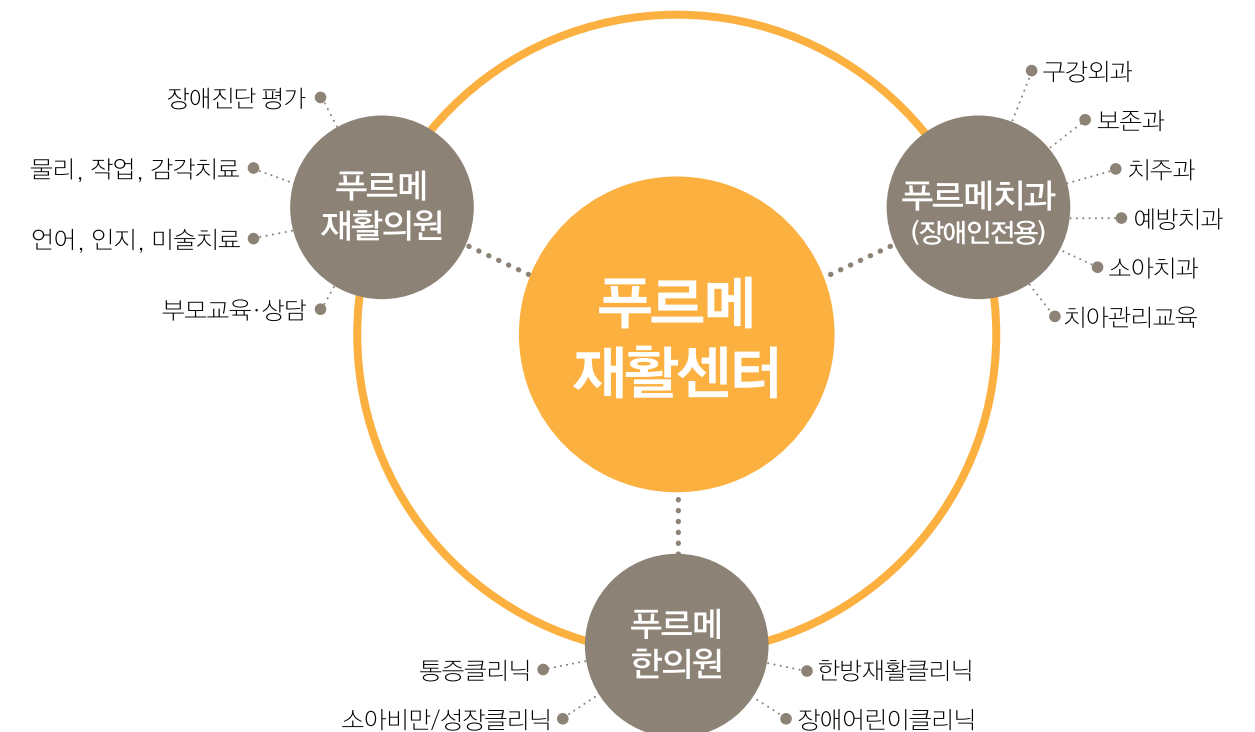


집들이에 참여해 장애어린이가 치료기구를 만들고 있는 기부자들

푸르메 재활센터

2007년, 푸르메나눔치과에서 시작한 의료서비스가 세종마을 푸르메센터가 문을 열면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재활의원과 한의원, 장애인 전용치과, 저소득 어린이를 위한 바우처치료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이제는 통합적인 치료모형을 제시할 수 있는 재활센터로 운영됩니다. 양방과 한방, 치과 등 다양한 영역의 의료분야가 협진하여 장애인에게 가장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종로구와 뜻있는 기업, 기부자 3천여 명이 힘을 합쳐 세운 센터인 만큼 장애인이 양질의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활 의료의 열악한 현실로 적자가 예상되지만 마음 놓고 치료받을 수 있는 재활센터가 되도록 기부자와 함께 희망을 이어가겠습니다.



＊ 푸르메 재활의원

푸르메재활의원은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중심으로 한 '어린이 재활치료 전문팀'이 협업해 치료하고 있습니다. 각 어린이의 상태에 맞는 특화된 재활치료 프로세스를 설정하고 임상경험이 풍부한 치료사들과 함께 치료목표 달성을 향해갑니다.

2012년 7월 개원 이래 장애어린이 288명이 4,702건의 진료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장애어린이, 청소년들이 환히 웃을 수 있도록 최선의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어린이들도 치료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 진료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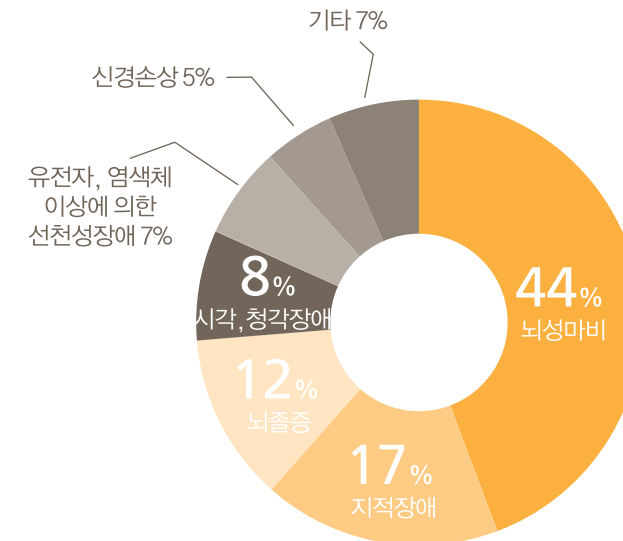
치료대상	만 18세 이하의 장애어린이·청소년
장애유형	모든 장애
위치	세종마을 푸르메센터 2층 각 치료실
치료방법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감각치료, 미술치료, 인지치료
진료예약	02-6395-7000

■ 운영현황

구분	단위
총 진료건수	4,702건
총 진료일	115일
총 진료수입 (매출기준)	98,675,15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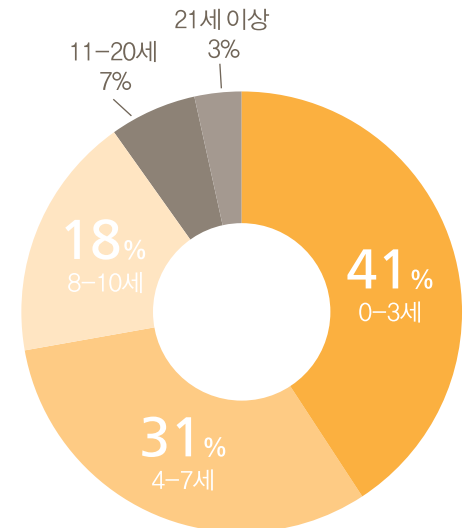
(2012. 7. 1 ~ 2012. 12. 31)

■ 장애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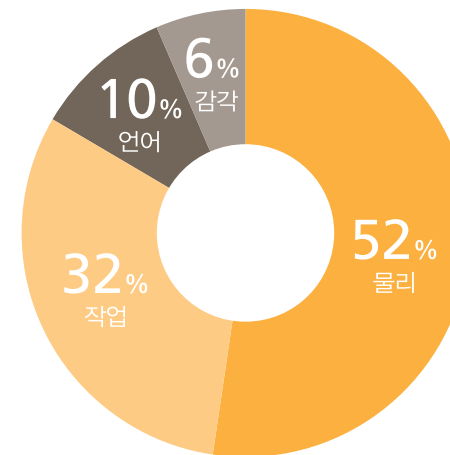
재활의원은 주로 운동, 감각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치료를 주로 필요로 하는 뇌성마비 어린이들의 비율이 높습니다.

■ 연령별



장애를 이룬 시기에 발견하고 제때 치료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0~3세 어린이가 가장 재활의원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연령이 높아져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 치료보다는 교육에 집중하게 돼 이용비율이 낮아집니다.

■ 치료방법



올바른 움직임을 위해 기본이 되는 물리치료, 스스로 일상적인 동작을 하도록 도와주는 작업치료는 욕구가 높아 치료사를 응원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에는 미술, 인지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푸르메 치과



치과는 장애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치료서비스입니다. 처음 치과가 오픈했던 2007년부터 장애인전용 치과로서 역할을 담당해 오다가 체계적인 진료와 재활 의원, 한의원과의 협진을 위해 재활센터 내 치과로 자리하였습니다. 어린이치과 치료실과 수술실 신설, 파노라마 장비교체 등 치과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더 많은 노력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진료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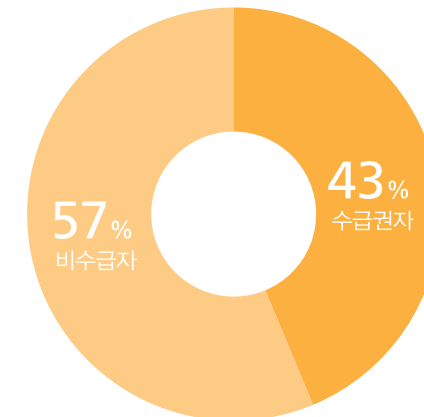
치료대상	등록장애인
위 치	세종마을 푸르메센터 1층
진료예약	02-735-0075

■ 운영현황

구분	단 위
신규환자수	480명
총 진료건수	4,360건
총 진료일	243일
총 진료수입	520,985,53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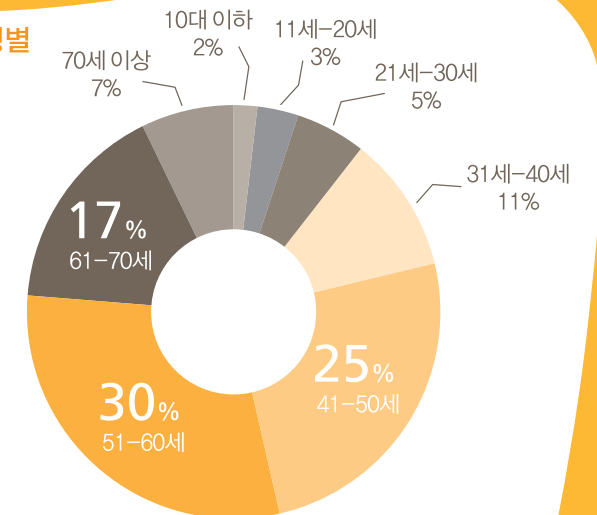
(2012. 1. 1 ~ 2012. 12. 31)

■ 이용환자수급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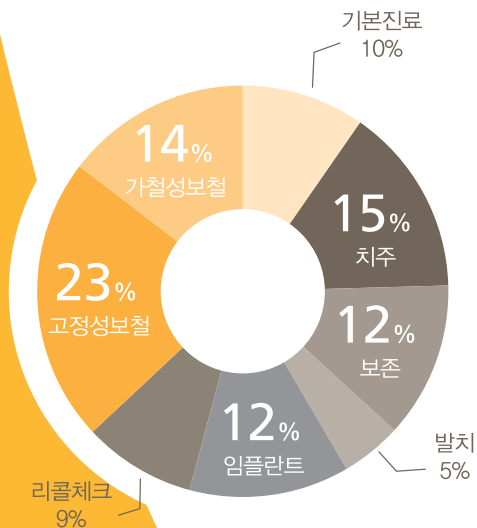
치료비 감면, 재단의 치과치료비 지원사업 등으로 인해 타 치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환자가 많이 찾았습니다.

■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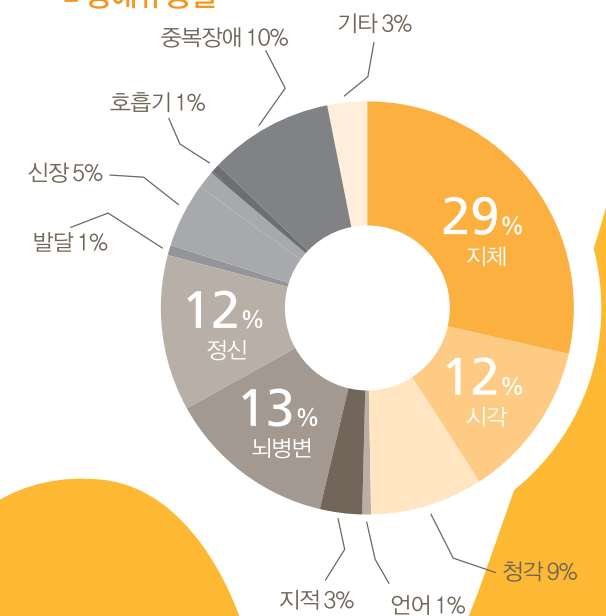
만성 치주질환이 시작되는 40대 이상 환자 비율이 높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치료하는 경우도 많아 환자 연령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 치료항목별



비용 부담으로 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만 받으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치아가 완전히 손상된 경우도 많아 보철치료의 수요가 높았습니다.

■ 장애유형별



다른 대부분의 치과들과는 달리 1층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이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 환자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 푸르메 한의원

2007년 ‘한방어린이재활센터’로 시작된 푸르메재단의 한방재활치료는 이제 재활센터 내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푸르메한의원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한의원 특화된 ‘장애어린이클리닉’은 흐트러진 몸의 균형을 맞추는 한방 재활치료를 시행하는 한편 양방 재활치료에 방해가 되는 비만, 섭식장애, 영양장애 등의 증상을 개선하여 더 효과적인 재활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치료시스템입니다.

재활의원과의 협진을 통해 장애어린이를 집중 치료할 뿐 아니라 비장애인을 위한 클리닉도 마련하여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와서 마음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 진료개요

치료대상	장애인 및 지역 주민
위 치	세종마을 푸르메센터 2층
진료예약	02-6395-7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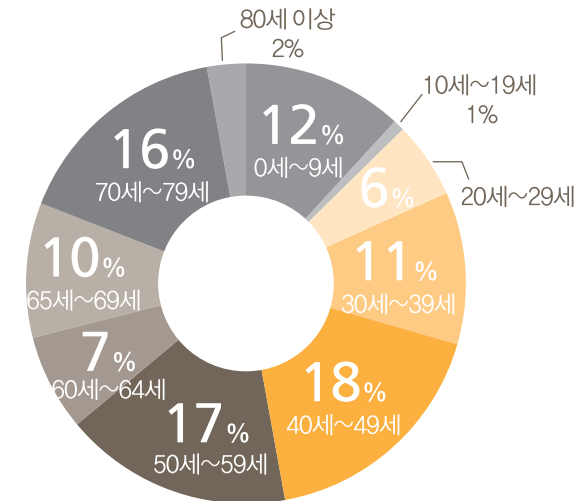
■ 운영현황

구 분	단 위
총 진료건수	1,467건
총 진료일	115일
총 진료수입	29,393,690원

(2012. 7. 1 ~ 2012. 12.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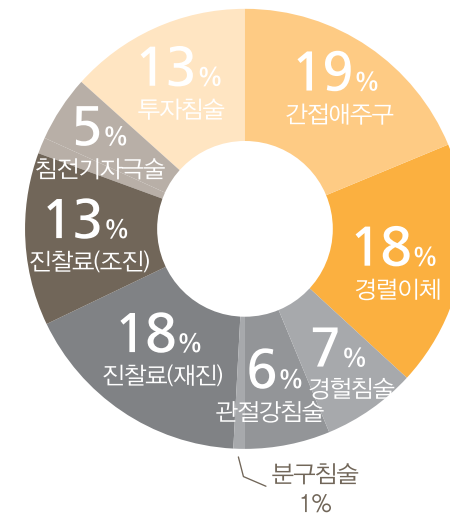


■ 이용자 연령별



0~10세 어린이가 성장클리닉이나 비만클리닉과 같이 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한의원을 찾는 경우는 있으나 순수 치료목적으로 내원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하지만 푸르메 한의원에 0~9세 이용자가 많은 것은 재활의원과의 양한방 협진을 통한 ‘장애어린이클리닉’을 이용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비장애 지역주민에게도 치료 기회가 열려있어 고령 연령대의 환자들이 한의원을 이용했습니다.

■ 치료 시술별



주로 침과 수기치료, 뜸치료를 시행했습니다. 이는 재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장애어린이 개별 특성에 맞는 침치료를 실시했기 때문입니다.

일반 한의원에서는 치료비가 많이 들어 받기 힘든 한방치료 시스템을 다양하게 연구·적용하여 2013년부터는 침치료와 함께 수기치료의 확대, 탕약과 환제의 처방 등 더욱 세밀하고 구체적인 치료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2012년 푸르메재활센터에서는...

■ 7. 1 푸르메재활센터 개원



정상적인 운동발달을 이루지 못하는 어린이에게 적합한 자극을 주어 정상발달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물리치료서비스 시작



각 아동별 알맞은 목표를 정하고 의미있고 목적있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작업치료서비스 시작



장애어린이의 일상생활활동, 놀이, 학업활동과 같은 작업수행을 돕는 감각치료서비스 시작



또래와 비슷한 수준의 언어수행을 돕는 언어치료서비스 시작



■ 9. 4 푸르메어린이도서관 개관



■ 9. 5 장애어린이의 치료를 위해 넥슨에서 꾸며준 통합치료실 개설



■ 12.19 장애어린이의 소망을 담은 크리스마스트리 제작



■ 12.21 넥슨과 함께하는 푸르메어린이음악회 개최

종로장애인 복지관



“민화그리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주민과 장애인. 종로장애인복지관은 지역주민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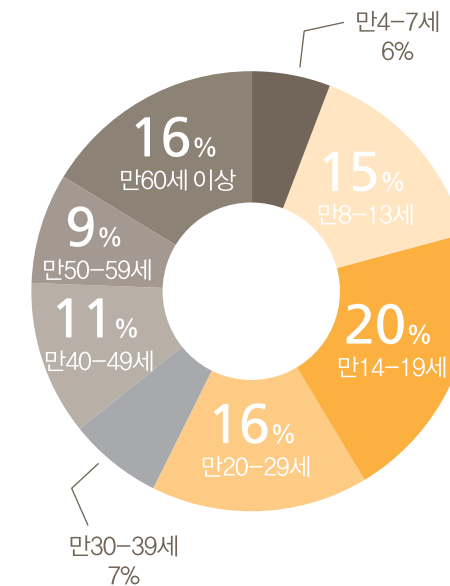
서울에서 유일하게 장애인복지관이 없던 종로구와 중구에 거주하는 7,000여 명의 장애인에게 제대로 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2년 7월 종로장애인복지관을 개관하였습니다.

개관 전 종로구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복지욕구 조사 결과를 반영해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문화적 요지인 지역 특색을 살리고, 농·맹학교와 이웃한 위치적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 인원	26,770명
이용 건수	5,552건
주요 사업	• 시각장애어린이를 위한 요리/체육프로그램 • 지적·자폐성장장애어린이를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 청각장애청소년을 위한 미래설계 멘토링 프로그램 • 장애아동·청소년을 위한 주말여가프로그램 • 기업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 확대 / 관리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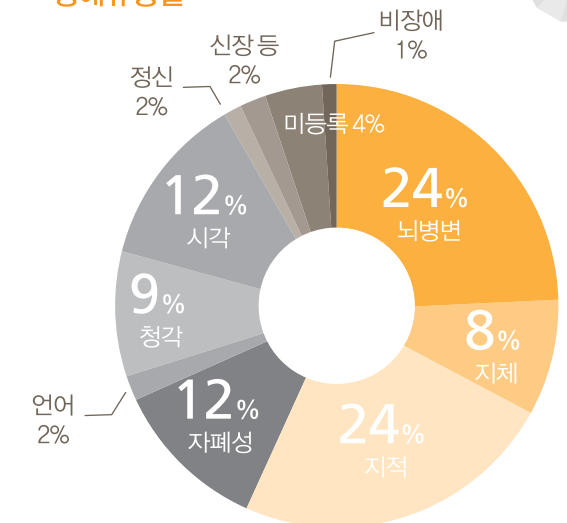
종로장애인복지관은 사전에 조사된 욕구와 종로구 거주 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인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확대, 재가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개발, 지역연계서비스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전체 장애인의 욕구가 잘 반영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 이용연령대별



개관 전 욕구조사에서 종로구 장애인들이 높은 기대를 나타냈던 문화여가프로그램을 활성화 한 결과, 20세 이상 성인장애인들의 이용이 많았습니다. 푸르메재활센터와의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 아동·청소년 이용비율도 타 복지관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 장애유형별



뇌병변, 지적장애인 비율이 높은 것은 종로구에 살고 있는 장애인 비율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국립서울맹학교와 농학교가 이웃해 있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원활히 진행한 결과 시각, 청각장애인 이용비율은 타 복지관에 비해 특히 높습니다.



■ 7.11 각계 인사들과 종로구 주민, 장애인들이 함께 참석한 종로장애인복지관 개관식



■ 9. 5 개관 기념 지역문화축제 개최



■ 9. 5 사회적기업과 함께하는 종로구 장애인취업박람회 개최



■ 9.16 청각장애청소년 멘토링 사업 (멘토들과 함께 자기감정표현을 위한 집단미술활동 진행)



■ 10.20 구직장애인 여가문화나눔 사업 '가을소풍' 진행

과천시장애인 복지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고자 과천지역 장애인의 염원을 담아 2011년 7월 19일 과천시가 건립하고 푸르메재단이 위탁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없던 과천지역에서 종합적인 서비스의 제공과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장애인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천시 장애인복지의 허브 센터로서 자리매김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전인적 재활을 위한 상담, 치료, 교육, 직업훈련, 사회적응지원, 문화여가지원, 평생교육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잠재능력 개발과 사회문화적 자립을 촉진시켜 스스로가 사회구성원으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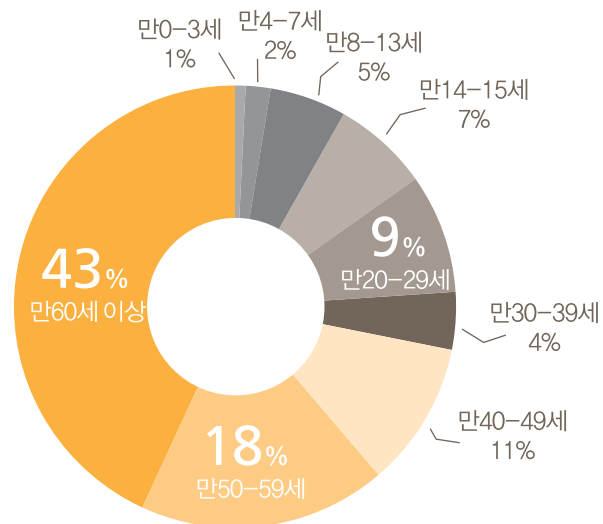
과천시 장애인구 2,000여 명 중 680명이 복지관에 등록하였으며, 연인원 의료재활 21,000여 명, 사회심리재활 4,500명, 직업재활 45,000여 명 등이 재활 및 자립을 위해 복지관을 이용하였습니다.



직업재활훈련의 일환으로 과천시장애인복지관에 “나무그늘”이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는 장애인 친구들은 카페를 찾는 모든 사람들을 항상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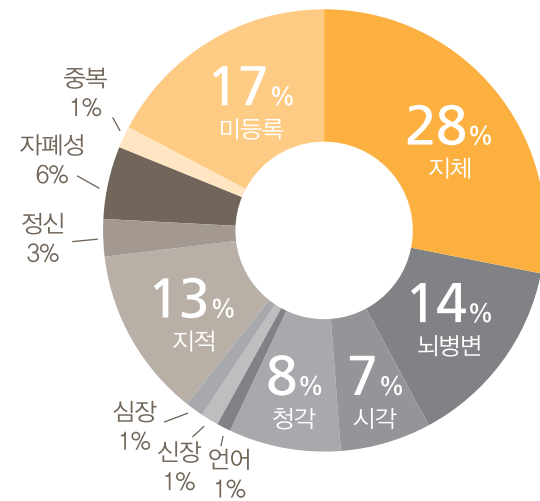
이용 인원	263,507명 (별도지원사업 52,332명, 단기보호시설사업 10,962명)
이용 건수	25,768건 (별도지원사업 7,921건, 단기보호시설사업 3,144건)
주요 사업	• 장애인자립을 위한 이행설계 컨설팅 • 장애인권익옹호 및 인식개선사업 • 보조공학센터 (전문 상담평가를 통한 보조기구 적용 및 대여) • 수중재활운동 (장애아동, 청소년, 성인장애인 대상) • 심리운동 (장애아동, 비장애형제지원, 직업적응훈련생 등)

■ 이용연령대별



과천시의 지역적 특성상 60세 이상의 장애인이 많이 이용했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노인종합복지관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도 두드러졌습니다.

■ 장애유형별



일반적인 장애인 유형별 비율에 맞게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를 가진 분들의 이용이 많았습니다. 다양한 장애유형의 이용자들을 위한 다양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 1.17 어린이 장애이해축제
“도전 이음벨”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퀴즈대회에 참석한 과천지역 200여 명의 초등학생들

■ 4.18 제32회 과천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복지관 직원들이 정부종합청사역 앞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거리홍보를 하는 모습

■ 7.19 개관 1주년 기념행사
“함께한 1년, 함께할 앞으로”

기념행사에 참석한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장애인 이용자들이 함께 떡케이크를 자르며 1주년을 축하하는 모습

■ 9.18 의료재활지원기금 마련을 위한
“마중물 바자회”

좋은 물건을 착한 가격에 구입하면 장애인 의료재활도 도울 수 있는 바자회에 참석한 지역 주민과 자원봉사자

종로아이존 ..



종로아이존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함께 나누는 아이존 개소식. 왼쪽부터 김성수 재단이사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영중 종로구청장, 한일웅 종로아이존센터장

종로아이존은 푸르메재단이 서울시로부터 위탁 받아 2012년 9월 4일 개소했습니다. 장애어린이의 재활과 복지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만 12세 이하의 발달장애(자폐증, 아스퍼거, 지적장애, 언어지연 등) 진단을 받은 어린이들이 치료받고 있습니다.

치료기관의 부족, 긴 대기 시간, 비싼 치료비 부담은 조기 치료가 중요한 발달장애어린이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재활치료기관의 높은 문턱을 낮추기 위해 종로아이존이 문을 열었습니다.

꿈꾸는 아이들의 공간, 종로아이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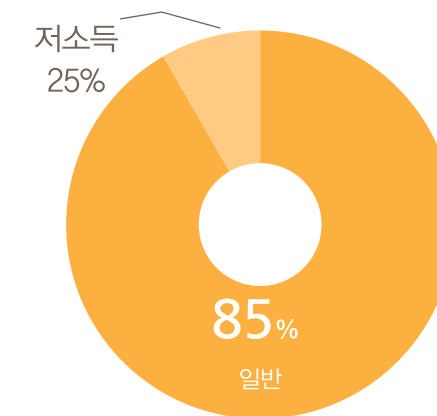
발달장애 어린이와 가족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인력이 모였습니다.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언어·인지치료사, 발달심리사, 사회복지사가 어린이에 맞춘 통합적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치료재활 프로그램 뿐 아니라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지역연계 서비스, 연구 사업 등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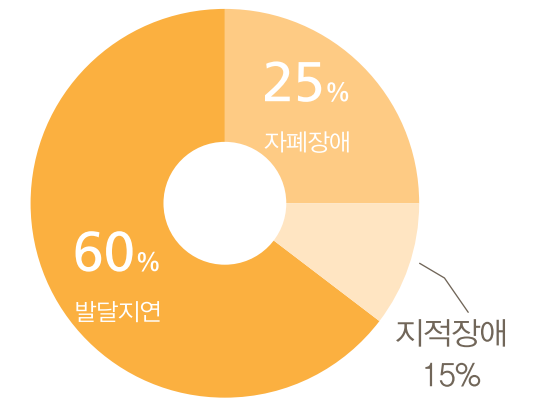
발달장애 어린이들은 첫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료대상	서울시 거주 만 12세 이하 발달장애 어린이
위 치	세종마을 푸르메센터 2층 (문의 : 02-6395-7045)
프로그램	인지학습치료, 치료놀이, 언어치료, 심리검사 부모역량강화 프로그램, 부모자조모임, 비장애형제프로그램



저소득층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음에도 이용자가 적었습니다. 조사결과 저소득층의 경우 부모가 모두 경제활동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아이를 치료기관에 데리고 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해결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이용하는 어린이의 95%가 영유아기에 속합니다. 발달단계가 또래보다 늦은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치료 받으면 장애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발달지연'의 영유아기 어린이를 집중 치료하고 있습니다.



■ 9. 4 개소식 (현판식, 사업설명회 등 진행)



■ 9. 7 장애인을 형제로 둔 비장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비장애형제지원프로그램”



■ 9.11 수시 발달장애 아이존 협의회



■ 10.15 은평병원 업무협약 체결



■ 10.24 운영위원회 개최
(종로아이존의 향후 방향성 제시)

행복한 베이커리&카페



직접 만든 커피를 들고 환하게 웃고있는 장애인 바리스타 들

행복한 베이커리&카페는 장애인들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일터입니다. 행복한 베이커리&카페는 차별 없이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2012년 9월 26일 세종마을 푸르메센터 1층에 오픈하였습니다.



푸르메재단과 서울베이커리, 그리고 SPC행복한재단이 함께 힘을 모아 준비한 장애인 고용사업장인 행복한 베이커리&카페는 장애인들이 직접 만든 건강한 유기농 빵,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직접 제조한 향기로운 커피, 그리고 자신의 일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장애인의 꿈을 이루는 행복한 일터

행복한 베이커리&카페를 준비하면서 ‘장애인이 일하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제품의 맛도 좋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카페가 오픈하고 나서 이런 선입견이 기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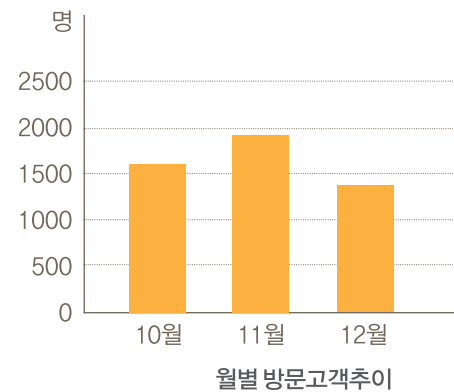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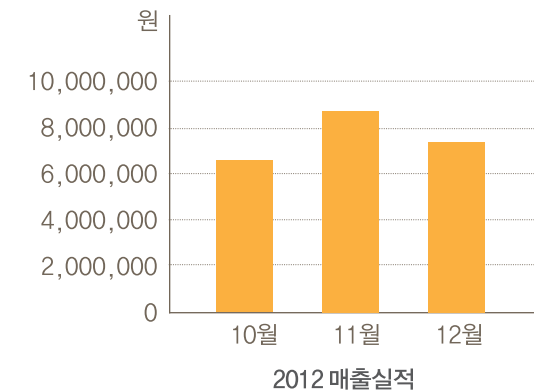
열정적으로 일하는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카페를 찾는 모든 분들에게 미소를 주고 있습니다. 커피의 맛이나 매장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서비스의 질이나 고객을 대하는 모습에서 그 어느 곳보다 경쟁력있는 카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나보다 더 어려운 장애인 친구들이 많아요. 작은 정성이지만 나보다 더 힘든 친구들을 돕고 싶어요.”라고 이야기 합니다. 단지 일하는 장애인 바리스타가 아닌 또 다른 장애인 친구들을 위해 봉사하고 기부를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 행복한 베이커리&카페 개요

오픈일	2012. 9. 26
장소	세종마을 푸르메센터 1층
면적	79.2㎡ (24평)
좌석	28석
운영시간 / 연락처	월~금 오전 8시 ~ 오후 7시 / 02-6395-7048
주요상품	• 음료 (커피, 녹차, 호우지차, 코코아 등) • 베이커리제품 (빵, 베이글, 케이크 등)
직원	6명 (장애인 바리스타 4명)
함께하는 곳	
푸르메재단	사업운영, 장소제공, 인력관리, 홍보
SPC행복한재단	설비, 운영자금, 운영노하우, 임직원자원봉사, 전문교육
소울베이커리	베이커리 제품 납품 (장애인 생산 유기농 제품)
수익금사용: 매장운영, 신규매장확대, 장애어린이재활치료비 지원	

■ 운영현황



문을 연 이래로 우리 베이커리를 이용해주시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마을 푸르메센터에서 근무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뿐 아니라 외부 고객이 많아지고 있어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12월은 운영일수가 적어 월매출은 감소했지만 일매출은 증가했고, 2012년에는 하루 평균 88명의 고객이 우리 베이커리를 찾아주셨습니다.

‘행복한베이커리’ 1호점 개점... 딸의 홀로서기에 아파는 감사의 눈물

“또래들과 다른 점이 많은 딸을 키우다 보니 부모로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 덕분에 겸손해지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카페가 번창해서 제 딸처럼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26일 서울 종로구 신교동 장애인복지시설 푸르메센터에서 열린 ‘행복한 베이커리 & 카페’ 1호점 개점식. 지적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만들어진 이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근무하게 된 이해윤 양(19·서울여고 3년)은 직원 가족대표로 나선 아버지 이모 씨(52)의 인사말을 듣다 왈칵 울음을 터뜨렸다. 딸의 우는 모습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눈시울도 함께 붉어졌다.

(중략)

“카페 100호점 열면 점장 할래요.”

이 카페에는 해윤 양 외에도 지적장애가 있는 젊은이 3명이 바리스타로 일한다. 김윤우 씨(26·지적장애 3급)는 “이 곳에 출근하게 돼 매우 기쁘다. 카페가 잘돼 100호점을 내게 되면 꼭 점장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희정 씨(19·지적장애 3급)와 김현아 양(18·지적장애 3급)도 “매장을 반짝반짝 닦아놓겠다”, “빵을 드시는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며 활짝 웃었다.

2012년 9월 27일자 동아일보 기사 본문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배분사업개요	32
	의료·재활지원사업	35
	자립지원사업	42
	문화지원사업	44
	미소원정대	46
	선과 함께하는 '만원의 기적'	48
	기타 행사 및 이벤트	52

푸르메배분사업..

사람과 사랑이 만나는 곳, 푸르메재단이 만듭니다.

장애인들이 생애주기별로 가장 도움이 필요한 때와 방법을 찾아내고 지원하며 고통과 소외의 근본적인 해결을 향해 나아갑니다.

돈이 아니라 관심과 관계를 나누고자 하며, 한 번의 나눔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 지역사회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지속가능한 대안을 만들고자 합니다.

장애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를 꼼꼼하게 관찰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 관심이 필요한 장애인을 찾아나서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장애와 관련한 전문인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장애로 인해 나타난 고통이 커지기 전에,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애정 어린 관계를 통한 관심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당당히 재활하고 자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012년	2013년	신규 및 확대 사업 소개
의료 및 재활치료 지원사업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	지원대상 및 규모를 확대하여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되는 비보험 치과 치료비를 지원
	장애어린이 재활치료비 지원	장애아동 의료재활 지원	지원대상을 푸르메재활센터 이용 가능한 아동에서 전국으로 확대 (치료비 지원, 부모교육, 책자 발간)
	장애어린이 긴급의료비 지원	장애어린이 긴급의료비 지원	지원대상을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규모 확대 (수시 지원)
자립지원사업		〈신규〉 중도장애인 자립 (가정복귀) 지원	중도장애인의 가정 내 편의증진을 위한 보조기구, 주택개조를 지원하여 빠른 퇴원을 이끌어냄으로써 원활한 가정생활 적응을 돕고 자립생활 기반 마련
	보조기구 지원	보조기구 지원	장애어린이 개인의 필요와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함으로 재활과 자립의 기반 제공
		정형신발 지원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맞춤형 신발을 지원하여 발과 다리의 변형을 막아 보행상태를 호전
문화지원사업	사회적응 및 장애가족 여가지원 (점프, 따로 또 같이)	사회적응 및 장애가족 여가지원 (점프, 따로 또 같이)	연간 1회 진행되었던 장애가족 지원사업 〈따로 또 같이〉를 확대하여 문화여가생활에 취약한 장애인 및 가족 지원
교육지원사업	장학금지원 (비장애형제, 자매)	장학금지원 (비장애형제, 자매)	장학금의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비장애 형제 자매의 학습권을 지원하고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
미소원정대	찾아가는 치과 방문진료	찾아가는 치과 방문진료	격월 1회, 이동의 어려움으로 인해 치과에 가기 어려운 장애인 단체 및 시설에 방문하여 구강검진 및 치과치료를 지원하여 구강질환 예방
		장애어린이 구강건강 증진 지원	장애어린이의 구강검진과 불소도포를 통해 장애어린이의 치과적 질환 예방

❖ 2012년 푸르메 나눔사업을 빛낸 이들을 소개합니다



SPC그룹 임직원 3,000여 명의 행복한 천원 나눔 9,000만원이 쌓여 장애아동 재활 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보령중보재단의 기금 1,170만원으로 장애아동 한방재활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임정진작가와 서울W로터리클럽의 <기적의 SNS모금: 백단월이름>으로 긴급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이토마토가 장애아동과 부모에게 <따로 또 같이> 문화여가 선물을 주었습니다.



신한은행과 직원들의 착한 나눔 4,000만원으로 장애인 구강건강을 돌봤습니다.



재능기부 꽃미남 치과 의사 고범진 원장이 푸르메미소원정대 최다출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주)예감은 점프객석 502석(2,485만원 상당)을 나누며 장애인들의 문화접근성을 높였습니다.



김종배, 석도준, 송우현 등 푸르메 배분위원들의 활약으로 의미 있는 배분을 이끌어냈습니다.



❖ 장애어린이 의료비 지원사업



장애아동을 둔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계속되는 병원 생활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푸르메재단에서는 장애와 질병으로 긴급한 의료 지원이 필요한 장애아동 및 청소년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의료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

- ①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 ② 만 18세 미만의 등록·미등록 장애아동 및 청소년으로
- ③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

■ 우선 지원대상

- 1~2급 중증장애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 이하)

■ 지원항목

- 맞춤형 의료비 지원(입원비, 검사비, 기타 치료비)
- 1인당 최대 300만원

■ 지원기준

- ① 장애특성 및 경제적 상황
- ② 치료의 효과성, 시급성, 적극성, 필요성, 자원의 중복성 등

■ 지원내용

구분	내용
지원인원	13명
지원금액	31,025,000원
지원항목/건수	39건 (치과치료비 1건, 입원비 2건, 검사비 1건, 언어치료비 11건, 인지치료비 7건, 물리치료비 6건, 작업치료비 5건, 음악치료비 3건, 미술치료비 2건, 감각통합치료비 1건)
지원아동 장애유형	뇌병변 10명, 중복 2명(청각·언어, 뇌병변·지적), 미등록 1명
지원아동 장애정도	1급 10명, 2급 2명, 미등록 1명
지원아동 연령	만 6~7세 5명, 만 5세 이하 4명, 만 10세 이상 3명, 만 8~9세 1명

❖ 장애어린이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된 질병, 그와 함께 찾아온 장애는 아이와 가족의 삶을 통째로 흔듭니다. 또래 친구들처럼, 다른 비장애 형제들처럼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간절함으로 시작된 치료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푸르메재단에서는 재활치료가 필요함에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장애아동 및 청소년에게 재활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여 신체적, 정신적 재활을 돕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① 만 18세 미만의 등록·미등록 장애아동 및 청소년으로
- ② 경제적 어려움으로 재활치료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중단 위기에 처한 자
- ③ 푸르메재활센터 이용이 가능한 자

■ 우선지원대상

- 1~2급 중증장애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 이하)

■ 지원항목

- 언어, 감각통합, 심리치료 등 비보험 재활치료비
- 1인당 최대 200만원

■ 지원기준

- ① 장애특성 및 경제적 상황 ② 치료의 효과성, 시급성, 적극성, 필요성, 자원의 중복성 등

■ 지원내용

구분	내용
지원인원	14명
지원금액	26,000,000원
지원항목/건수	18건 (언어치료비 9건, 감각통합치료비 8건, 인지치료비 1건)
지원아동 장애유형	뇌병변 5명, 미등록 4명, 중복 3명 (뇌병변·지적, 시각·지적, 뇌병변·청각), 지적 2명
지원아동 장애정도	1급 8명, 미등록 4명, 2급 1명, 3급 1명
지원아동 연령	만 6~7세 6명, 만 5세 이하 3명, 만 10세 이상 3명, 만 8~9세 2명

화물차 타고 충주에서 서울까지, 은진이는 6년 동안 치료여행 중



충주에 사는 은진이(가명)는 생후 5개월부터 매주 서울에 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강직성 양측마비성 뇌성마비를 앓아 재활치료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충주에는 복지관 한 곳 외에 전문 재활치료기관이 없습니다. 농사 짓는 형편에 이사를 하기도 어려운 은진이네는 매주 서울에 와서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엄마도 소아마비를 앓아 두 차례의 수술을 하고 거동이 불편하지만 은진이를 데리고 매주 서울에 있는 재활병원 두 곳을 다니며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를 받습니다. 오가는 교통비도 만만치 않지만 은진이가 걸을 수 있길 바라는 간절함으로 6년째 이어왔습니다. 몇 개월 후 초등학교에 입학할 은진이가 감각통합치료를 추가로 받게 된다면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이 되지 않는 치료라 비용이 부담돼 염두가 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치료 돕느라 늦게 시작한 민아의 재활치료

어린이집에 다니는 민아(가명)는 3년 전 서울시장애인복지관에서 정신지체 소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올해 6살이 된 민아는 또래보다 언어발달이 늦어 두 단어를 붙여 말하는 정도로 의사표현을 합니다. 아빠는 토너소모품 배송일을 하고, 엄마는 민아와 갓 돌이 지난 동생을 돌보고 있습니다. 월 180만원의 아빠 수입으로 간암 투병 중이던 할아버지 병원치료비까지 마련해야 했습니다. 민아는 늦게나마 올 봄부터 사설치료센터에 다니고 있습니다. 월 20만원의 바우처 지원금으로는 일주일에 한, 두 번 언어치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민아에게 주변 환경 수용을 위한 감각통합치료가 함께 이루어지면 발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엄마는 민아가 '곧 나아지겠지...' 하면서 오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이젠 장애등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말입니다.

학령기에 있거나 학령기를 앞둔 장애어린이들에게 언어치료, 감각통합치료와 같은 재활치료를 제때 시작하는 것은 정상발달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재활치료비 지원으로 은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해 병원이 아닌 멋진 곳으로 여행을 다니고, 민아가 치료실이 아닌 집에서 동생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며 놀 수 있는 그날을 앞당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후원기업



SPC그룹 임직원들은 2012년 5월부터 매월 1,000원씩 기부하여 <SPC행복한펀드>를 조성했습니다. 2012년 말까지 SPC 임직원 3,000여 명의 행복한 나눔으로 장애아동 및 청소년들의 재활치료비,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 치과치료비 지원사업



“**씹을 수 있는** 즐거움을 되찾았습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신체, 정신적인 문제로 치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심각한 구강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이동제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문제 치아를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영양불균형, 건강악화로 인한 2차 장애가 유발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진행되는 심사회의를 통해 치과치료가 필요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치과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구강건강을 지키고 치과질환으로 인한 2차 장애를 예방하여 오복의 기쁨을 되돌려드리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치과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만 70세 이하)

■ 우선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저소득자
- 현재 학업 중 혹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자

■ 지원내용

- 임플란트, 보철 등 비보험 치과진료 (1인당 최대 300만원 미만)

■ 심사기준

- ① 장애유형 및 특성 ② 경제적인 상황 ③ 치과치료의 시급성
④ 치료진행 의지 및 치료협조도 ⑤ 내, 외부의 치료지원요소

■ 지원내용

구분	단위
지원인원	22명
지원금액	31,750,000원
지원아동 장애유형	중복 6명, 지적 6명, 지체 4명, 뇌병변 3명, 기타 3명
지원아동 연령	1급 9명, 2급 9명, 3급 4명, 4급 1명
지원아동 장애정도	20대 5명, 30대 5명, 40대 4명, 50대 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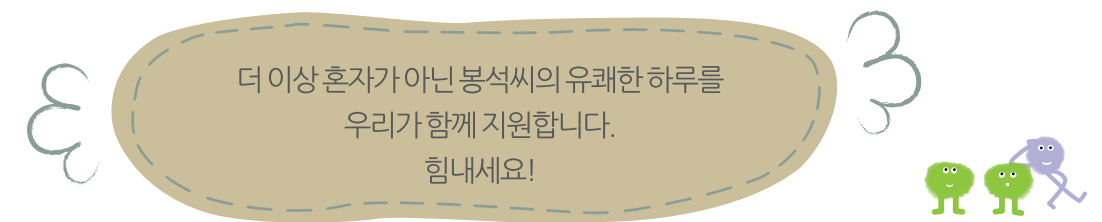


“**치 과 치 료** 와 함께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작년 봄, 30여 년 만에 학교로 다시 돌아온 봉석씨(가명)는 다섯 살 때 고막을 다쳐 청각을 잃은 후 오랜 시간 자신만의 조용한 세계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다 손가락이 부러졌지만 제대로 보상받지 못해 그대로 굳어버렸고 건축현장에서 낙하사고로 다친 허리는 치료시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작년,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치아가 부러졌지만 당연히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할 줄 알고 포기했었던 봉석씨에게 치과치료비지원이라는 도움의 손길이 찾아왔습니다.

예전에는 아파도 의사소통이 어려워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 병원에도 가지 못한 채 참을 수 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학교 선생님뿐 아니라 수화통역사, 사회복지사 등이 함께 그의 치료진행을 위한 지원을 합니다.

“예전에는 수화를 제대로 배우지 못해 농인들끼리도 대화하기가 어려웠어요. 여러 단어들을 배울 수 있게 되니까 좋아요. 국어시간이 제일 재미있어요!”
먼저 다가와 인사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 이야기를 늘어놓는 봉석씨의 밝은 표정이 참 반갑습니다.



■ 후원기업



치과치료비지원사업은 신한은행(사회복지공동모금회)과 100인후원회(저소득장애인 치료비지원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한방치료비 지원사업

“장애어린이들,
먼저 건강해야합니다.”



수기치료



약침치료



침치료

그동안 진행되었던
한방재활치료의 과정

(허영진 한의사/
前 푸르메어린이한방센터 원장)

장애어린이의 경우 워낙 체력이 약해 재활치료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한방재활치료는 면역력을 높여 이를 통해 길러진 체력을 바탕으로 타 재활치료의 효과성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장애어린이를 위한 한방재활치료비 지원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 중단에 위험에 놓여있는 어린이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여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으로 한방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

■ 우선 지원대상

- 중증장애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저소득자

■ 지원내용

- 한방재활치료비 (환약지원)

■ 심사기준

- ① 장애유형 및 특성
- ② 경제적 상황
- ③ 한방치료의 필요성과 효과성

■ 지원내용

구분	단위
지원인원	3명
지원기간	2011.10~2012.11 (아동에 따라 6개월~12개월 지원)
지원내용	한방재활치료 (환약 지원)
지원금액	8,700,000원

“작년까지만 해도 고통으로 인해 잠을 못 이루는 아이가 밤마다 울어서 병실에서 쫓겨나듯이 나와 복도에서 함께 울곤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아이가 잠이라도 잘 수 있다면...’이라는 소박한 바람에서 시작된 한방재활치료와 치료비지원을 통해 윤원이, **윤원이의 가정이 변화**되었습니다.

6개월 만에 만난 윤원이는 몰라보게 키가 자랐고 엄마의 손에 의해 안겨서 병원에 들어서는 아이에게는 더 이상 고통으로 인한 울음은 없습니다. 간질로 인해 온 몸이 긴장상태인 윤원이가 울어대는 통에 밤마다 입원 중인 병실에서 나와 남몰래 눈물을 흘리던 날들은 먼 옛날 일인 듯 미소 짓는 엄마의 얼굴에도 희망이 보입니다. 또한 윤원이는 온 몸에 강직이 심해 팔을 굽힐 수가 없어서 겨울에도 점퍼를 입히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꾸준한 재활치료로 인해 각 관절이 많이 부드러워져 이제는 아픈 수기치료(마사지)도 거뜬하게 받는 아이의 모습이 참 대견합니다.

한방치료를 받는 동안 윤원이는 감기 한번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워낙 체력이 약해서 50분의 재활치료를 받기도 어려웠지만 이제는 **병실에서 NO 1!!!** 같이 입원 중인 엄마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엄마와 눈을 맞추며 ‘엄마’라고 말하는 꿈, 우리에게는 오지 않을 듯 먼 일 같았던 그 꿈에 조금은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한방재활치료비를 지원받은 아동의 어머니 인터뷰 중)



■ 후원기업



보령중보재단은 2011년 장애어린이 재활치료비 지원을 시작으로 장애아동을 위한 성탄선물 지원, 선과 함께 하는 만원의 기적 참여 등 푸르메재단과 장애아동을 위한 지원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보조기구지원사업

“즐거운 나눔, 행복한 성장”

2012년 보조기구지원사업은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 중인 장애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지역 내 장애아동 및 청소년 인구 특성을 감안하여 지원물품을 선정하였으며(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전체 아동의 67%) 장애아동 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증 장애영역인 지체 및 뇌병변 장애아동의 물리적 재활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지원대상

- 초등학교 재학~만 18세 미만으로 화성시에 거주중인 장애아동
- 장애유형 및 등급: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장애, 1~3급
- 경제상황: 2012년 가구평균소득인정액 150% 이내
- 아이패드 (교육 및 치료지원)
- 목욕의자 (건강 및 일상생활 지원)
- 욕창방지매트 및 에어방석 (건강 및 일상생활지원)

■ 심사기준

- ① 장애정도 ② 보조기구 활용성 ③ 경제적 상황

■ 지원내용

구분	단위
지원인원	33명
세부지원내용	아이패드 28명 목욕의자 3명 욕창방지매트, 공기방석 2명



2012년 보조기구 지원사업은 화성시민들의 기금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화성시민들의 즐거운 나눔을 통해, 장애아동과 청소년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발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비장애인에게는 그저 태블릿PC일지 몰라도 우리 아이에게는 삶의 질을 변화시켜주는 귀중한 치료도구입니다.”

올해 보조기구 지원물품에는 대표적인 태블릿 PC인 아이패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너도 나도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가지고 언제든 지구 반대편 사람들과도 소통할 수 있게 된 요즘, 태블릿PC가 장애아동을 위한 치료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아시나요?

우리에게는 영화, SNS, 채팅 등 여가를 즐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태블릿PC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날개가 되어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준혁(가명)이는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나만의 성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여러 방법으로 아이와의 소통을 시도했으나 매번 담에 가로막혀버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지인이 가져온 아이패드가 간단한 터치로 화면이 바뀌고 소리가 나는 것을 바라보던 준혁이가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이는 아이패드를 통해 ㄱ, ㄴ, ㄷ 을 쓰는 법을 배우고 1, 2, 3 숫자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푸르메재단에서는 이후에도 지속적인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아이패드가 치료교육도구로써 아이들의 재활에 더욱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 아이패드로 세상과 소통 중인 오웬 (출처:뉴욕타임즈 동영상 캡처)

❖ 문화나눔-점프

문화공연이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다른 어떤이에게는 한없이 멀기만 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의 문화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주)예감과 함께 신나는 JUMP 공연을 통한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만 4세 이상,
- 장애인을 동반한 4인 이상의 단체

■ 지원내용

- 공연관람티켓

구분	단위
지원횟수	12회 (매월 1회)
지원인원	502명 (장애인 및 기관관계자, 장애가족 등)
참여기관	함께가는마포장애인부모회 등 28개 기관

서울 및 경기도, 충청도에서까지 문화나눔-점프를 보기 위해 많은 장애인들이 찾아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꿈만 같았던 서울에서의 하루, 공연이 끝나고 나서도 왠지 몸이 들썩거리게 만드는 신나는 공연. 오늘은 아마도 마음 속에 오래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 후원기업



전세계 누구나 웃을 수 있는 공연, 누구나 감동받을 수 있는 공연을 만드는 (주)예감은 2010년 4월부터 뮤지컬 점프 문화나눔을 통해 장애인에게 신나는 하루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 장애가족 여가생활지원- 따로또같이

따로또같이이는 뉴스토마토의 지원으로 장애어린이와 장애자녀를 가진 부모님을 위해 2010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어린이의 부모님들은 양육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잠시도 아이들과 떨어지기 어려워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나 휴식을 취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애어린이에게는 재활치료로 힘겹던 일상에서 벗어나 외부에서 어린이답게 놀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부모님께서는 양육의 부담을 하루쯤 잊어버리기 위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처녀 때 이후 처음으로 찾는 세종문화회관이에요. 덕분에 옷장에서 예쁜 옷 찾아 입었어요!”
오랜만에 한껏 멋을 내고 한 옥타브쯤 목소리가 올라간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재활치료 때 뵈던 모습과는 왠지 다른 느낌입니다. 덩달아 아이들도 지루한 재활병원 밖 외출에 신이 난 듯 즐거운 모습입니다. 휴일을 반납하고 아이들을 위한 나들이에 손들고 찾아와 준 자원봉사자들은 하루 동안 짝꿍이 될 아이들과 오늘의 소풍을 시작합니다.
어느덧 즐거운 소풍이 끝날 때면 헤어지기 아쉬워 다음을 약속하는 사람들...
“다음에 또 만나서 놀러가자~”



어머니들도 장애어린이들도 오늘은 따로 따로, 하지만 행복의 깊이는 같은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이 추억이 얼마 동안은 힘든 재활치료의 시간들을 건디게 해줄 귀중한 치료약이 되어주겠지요?

■ 후원기업



증권전문방송 이토마토는 따로또같이를 통해 2010년부터 장애어린이와 가족에게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소원정대 ..⚙

누구나 공평한 기회를 가져야 하는 건강권,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지켜주세요.

2010년부터 치과치료에 소외된 장애인 기관 및 단체에 방문해서 치과진료를 진행하고 있는 미소원정대. 2012년에는 치과 의사, 치위생사, 그리고 일반봉사자 등 10여 명의 미소원정대원이 서울 경기권의 10여 개 기관에 방문해 300여 장애인과 장애가족, 기관담당자들을 만났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장애인들의 구강상태는 당장의 치과치료가 필요한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장 치과에 가야 하는 장애인들이지만 그들에게 치과의 문턱은 높기만 합니다. 지금 당장 모든 치과의 문턱을 낮출 수는 없지만 저희가 찾아갈 수는 있습니다.



■ 미소원정대 참여인원

의료진 및 일반 자원봉사자 65명 (신한은행 봉사단 포함)

■ 진료인원

341명

■ 활동내용

구강검진, 스켈링, 충치치료, 단순발치, 구강교육, 기타치료, 구강용품지원 (개별 칫솔 및 치약, 치실 등)

■ 후원기업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지키는 2012년 푸르메미소원정대는 신한은행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활동내역

차수	활동일자	장소	진료대상
1차	2012-01-15	삼육재활원 *신한은행 자원봉사협력	57명
2차	2012-02-19	아름다운/사랑의집	31명
3차	1차-2/27, 2차-4/4	푸르메치과 방문진료: 헬렌켈러의집	18명
4차	2012-03-11	한울장애인공동체	30명
5차	2012-04-22	과천시장애인복지관	31명
6차	2012-05-20	서부장애인복지관	44명
7차	2012-07-18	푸르메치과 방문진료: 맹학교	6명
8차	2012-09-16	일사일촌-인제군 덕산리 *신한은행 자원봉사협력	84명 *치과 외 진료 58명 포함 (한방, 내과 등)
9차	1차-10/14, 2차-10/24	라파엘의집	22명
10차	2012-10-21	돌봄의집	18명

“세상에 이렇게 고마울 데가... 세상이 차갑기만 한 줄 알았는데 살만 하네요.
오늘은 우리 마을에서 내가 제일 복 받은 거 같아요.”

거리마다 봄을 알리는 꽃나무들 사이로 비가 오던 날, 봄비와 함께 미소원정대가 우리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전문치과진료는 비장애인들도 단단히 마음먹고 준비하여 받는 것이기에 이동과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과 장애로 인해 댁에서 주로 지내셔야 하는 어르신들께는 더욱 쉽지 않은 일입니다.

찾아 뵙고 안부인사 드리며, 당사자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기본검진결과를 알려드렸습니다. 현장에서 조치가 가능한 부분까지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드리지는 못하기에 ‘미소원정대’의 방문만으로도 마을의 장애인과 어르신들께는 참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방문해주세요. 미소원정대!

기관 담당자의 편지 중

선과 함께 하는 ‘만원의 기적’ ..⚙

❖ 전 세계 800명 아이들의 아버지, 이제 대한민국 장애어린이 15만 명의 아버지로

하루에 1만 원씩 차곡차곡 모아 결혼기념일이 되면 노숙인들을 위해 기부하고 밥을 푸는 남자, 아이들의 돌잔치 비용을 모아 난치병 환자 수술을 위해 기부하는 남자, 필리핀 아이들 100명, 한국 아이들 100명, 아이티 아이들 100명, 그리고 평양 고아원 아이들 500명을 후원하는 남자, 전 세계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기를 자처한 남자 선. 선은 자신의 아이 4명의 아버지가 되는 것은 물론, 전 세계 800명의 아이들을 돌보며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세상의 모든 아이들의 아버지입니다.

이에 멈추지 않고 선은 한국 장애어린이 10만 명(등록 장애인 기준)의 아버지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단 하나뿐인 어린이 재활병원을 짓는데 동참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루 500명, 연간 15만 명의 장애어린이들의 장애를 조기 발견, 치료하고 재활하여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재활병원을 짓는데 발 벗고 나서며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재활센터를 찾아 장애어린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선, 정혜영 부부. 정혜영씨는 이날 모 델료로 받은 2,000만원을 기부했습니다.



10km 마라톤 경기에서 장애어린이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티셔츠에 새기고 달린 선

❖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에 발벗고 나서”

기적을 꿈꾸는 사람, 믿고 달리면 기적은 이루어진다는 남자 선이 기적을 이루어내기 위해 ‘만원의 기적’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2월 8일 SNS인 트위터에서 선(@jinu-sean3000)의 계정으로 출발을 알린 ‘만원의 기적’은 많은 사람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2월 14일부터 신청자 모집)

‘만원의 기적’은 어린이 재활병원건립을 위해
매일 1만 원씩, 1년간 365만 원을 모아
기부하는 캠페인입니다.

‘만원의 기적’에는 선을 비롯해 선의 아내인 배우 정혜영, 가수 싸이, 야구선수 박찬호, 가수 타블로, 배우 차인표 등 많은 이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싶지만 다소 부담스러운 금액 때문에 다른 도움의 손길을 주고 싶어 하는 기부자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았고, 이에 ‘천원의 기적(1일 1천 원씩)’도 탄생했습니다. 선과 함께 하는 ‘만원의 기적’과 ‘천원의 기적’은 지금까지 1,500여 명의 후원자들이 참여하며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에 흠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천원의 기적 기부자들과 함께한 떡볶이 번개모임

❖ “기적의 천사, 철인에 도전하다!”

선은 온라인 활동에 만족하지 않고, 오프라인까지 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여건이 허락되면 만원의 기적을 신청하는 후원자를 선이 직접 찾아가 인증샷을 찍고, 고마움과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때때로 긴급 번개를 통해 기부자들과 함께 떡볶이를 먹고 뮤지컬을 보기도 합니다. 토크 콘서트를 열어 어린이 재활병원을 짓는 것과 기부하는 마음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갖기도 합니다.

선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만원의 기적’과 ‘어린이 재활병원’을 알리기 위해 철인에 도전했습니다. 철인 3종 경기와 마라톤에 참여하며 온몸으로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과 ‘만원의 기적’을 알리는 데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을 달리면서 감동의 기부를 알리는 선의 노력 덕분에 기업들의 동참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만원의 기적’과 ‘천원의 기적’에 참여하는 기부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3년 9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000여 평의 부지에 어린이 재활병원이 첫 삽을 뜹니다. 그리고 2015년, 선과 기부자들이 꿈꾸는 ‘어린이 재활병원’의 건립이 현실화되며 또 하나의 기적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원의 기적 기금 모금을 위해 군산 철인3종경기에 참가한 홍보대사 선



만원의 기적 기부자들에게 보내는 기부증서를 들고 기뻐하는 모습



만원의 기적 홈페이지 : <http://www.miracle365.org>

(만원의 기적 홈페이지에서는 “만원의기적” 참여방법과 싸이, 빅뱅, 박찬호 등 연예인과 운동선수들이 기부한 사진과 기부 사연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고사리손으로 만든 기적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늘품자연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 130명이 알뜰장터에서 얻은 수익금 809,000원으로 ‘만원의 기적’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알뜰장터에는 중고물품을 나누어 쓰는 어린이벼룩시장과 어린이들이 직접 만든 비누, 손수건, 모자, 부채 등을 판매했습니다. 알뜰장터는 처음 배우는 경제활동이자 기부활동이 되었습니다. 이어 12월 24일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130명의 원아들은 2주간 모은 동전 저금통(528,220원)을 다시 한번 만원의 기적에 전달해 주었습니다.



용돈을 모아 장애어린이 친구들을 위해 써 달라고 기부한 늘품자연유치원 아이들의 모습

❖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광고 출연 수익금 8천만원 기부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만원의 기적’에 동참, 8,000만원을 기금으로 전달해 주셨습니다. 조수미 씨는 “어려운 와중에도 시민기금을 모아 어린이 재활병원을 짓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소중한 씨앗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동참하게 됐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종마을 푸르메센터를 방문해서 물리·작업·감각·언어·통증·인지치료 등 재활센터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장애 부모님을 직접 만나기도 하셨습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씨가 자신이 출연한 CF 광고의 수익금 8,000만원을 기부하고 만원의 기적 기부증서를 들고 있는 모습”

❖ 차인표 만원의 기적 10구좌 3650만원

“가수 선을 통해 국내 장애어린이들을 도와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차인표 씨가 삼성자산운용의 ETF 브랜드인 KODEX의 광고료의 일부를 ‘만원의 기적’ 캠페인에 기부했습니다. 차인표 씨는 ‘만원의 기적’ 10구좌에 해당하는 3,650만원에 KODEX의 기부금 6,350만원을 보태어 1억 원을 공동 기부 해주셨습니다. 차인표 씨와 KODEX는 기업과 광고모델을 넘어 나눔의 파트너로 함께 서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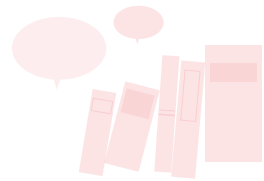
왼쪽부터 삼성자산운용 박준현 사장, 홍보대사 선, 탤런트 차인표씨

기타 행사 및 이벤트

책 읽어주는 시장님 (9월 4일)



2012년 9월 4일 세종마을 푸르메센터 개관식에 박원순 서울 시장이 참석해 시각장애인 어린이들과 함께 책을 읽었습니다. 박원순 시장과 박현하(서울맹학교2학년/시각장애1급) 어린이가 함께 읽은 책은 장애가 있는 두 사람이 서로 도와 문제를 해결한다는 <길 아저씨 손 아저씨> (권정생 글)였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한 페이지를 읽으면, 그 다음 페이지는 현아어린이가 손끝을 이용해 점자를 따라가며 읽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책을 잘 읽는 현하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책 내용처럼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사는 세상을 꿈꿔보는 날이었습니다.



이해인 수녀와 함께 하는 희망 나눔 콘서트 (10월 20일)



4년째 대장암과 싸우며 곳곳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해인 수녀가 '시'로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희망 나눔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이해인 수녀는 자작시 '꽃마음 별마음', '있잖니 꼭 그맘 때', '행복의 얼굴' 등을 낭송하며 희망을 전했고, 특별 참석한 개그맨 이동우 씨와 배우 김현주 씨도 애송시를 낭송하며 마음을 보탤었습니다. 이해인 수녀는 어린이가 힘들게 살아가는 현실을 접하고 그들을 도울 방법을 고민해 왔고, 2011년 6월에 이어 두번째로 마련된 이번 콘서트에서 그 마음을 이어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장에서 모금된 돈은 장애어린이가 치료 기금으로 기부되었습니다.



엄홍길 대장과 성곽길 걷기(2월 5일)

혜화문에서 시작해 창의문에 이르는 북악산 코스를 지나 세종마을 푸르메센터 공사 현장까지 김영종 종로구청장, 강지원 대표와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부부, 김덕영 보미건설 회장, 그리고 푸르메재단 기부자 등 총 70여 명이 함께 걸었습니다. 세종마을 푸르메센터 건립에 힘을 보태는 사람들이 함께 걸으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길과 길을 따라 마음이 한발 앞서나가는 뜻 깊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히말라야에서 받아 온 좋은 기운을 여기 계신 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서로 나누고 힘을 주는 좋은 분들과의 만남을 통해 좋은 기운을 얻어갑니다.”

홍보대사 엄홍길 대장 마무리 인사 중-

장애 어린이들에게 꿈을 주는 키다리 아저씨! 이철재 (9월4일)

이철재 기부자는 17살 어린 나이에 미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척수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넥슨의 자회사인 퀵디멘션스 대표로 활동하던 기업가로 매월 50만 원씩 기부를 해오다 푸르메센터 건립을 지원하고자 1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또한 푸르메센터에 방문하는 장애 어린이들이 볼 수 있도록 미국유명화가 피터 오페임의 그림(2억5천만 원)도 기부하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많아져 아이들이 희망과 꿈을 가질 있도록 돕는 게 이철재 기부자의 작은 소망입니다.



본인이 기증한 그림 앞에서 생일 축하를 받고 있는 이철재 기부자

찾아가는 전시회 (박정희, 젊은 작가 8인, 이상교 작가)

전시장을 찾아가기 힘든 장애인과 부모님을 위해 국내외 작가들이 푸르메센터로 찾아와서 전시를 하였습니다. 중견 화가 박정희(10월), 젊은 일러스트 작가 8인(미화, 김소현, 말자, 서나, 이지아, 김영은, 강나래, Me)의 착한 그림전(11월), 아동문학가 이상교 그림전(12월)까지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작가들의 전시는 병원 복도를 밝히고, 장애어린이와 그 가족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했습니다.





Part3
2012
푸르메재단
소개

◆	지금의 푸르메가 있기까지	56
◆	연 혁	58
◆	이사진	60
◆	홍보대사	62
◆	살림살이	64
◆	기부자명부	67

지금의 푸르메가 있기까지

〈책상 두 개로 시작한 마음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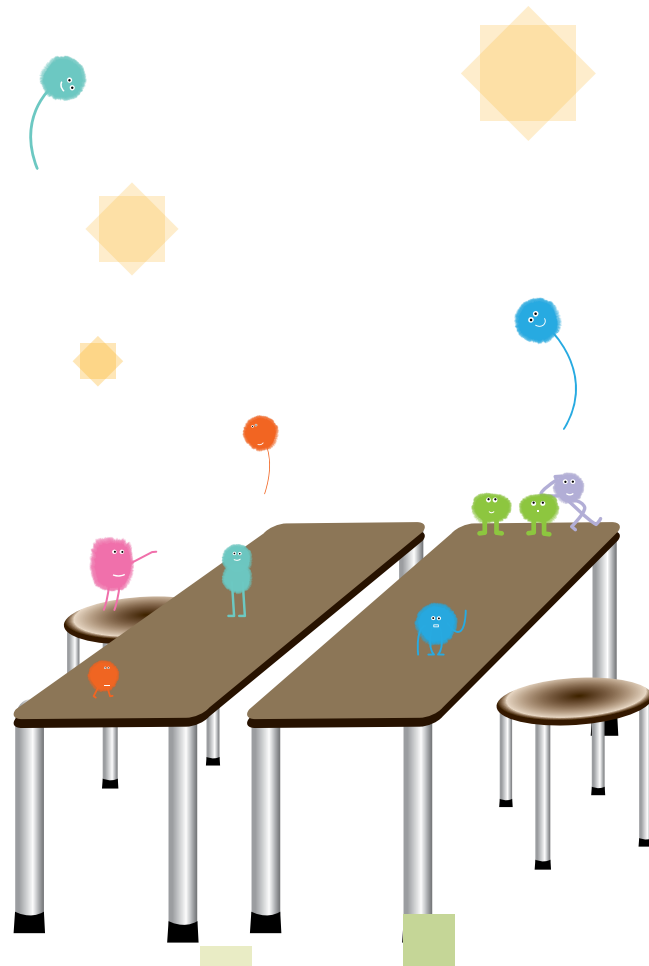
“이가 많이 아파요. 마음껏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동네 어귀에서 만난 장애인의 말 한 마디가 오늘의 푸르메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장애인에게 절박한 것은 당장 음식을 씹어 먹을 수 있도록 아픈 이를 치료받는 것이었습니다. 음식을 제때 먹지 못하면 영양 결핍으로 장애가 악화될 뿐 아니라 중복장애가 나타나고, 결국에는 목숨을 잃게 된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2007년 민간 최초의 장애인전문 <푸르메나눔치과>는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여기에는 장경수 전 서울대 치대교수가 중심이 된 자원봉사 의료진과 자발적으로 자원봉사에 나선 시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두 달 뒤에는 푸르메어린이한방재활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5년 뒤인 2012년 9월 꿈꾸던 푸르메재활센터가 건립 되었습니다.

푸르메재단은 2005년 종로 1가의 한 지하사무실에서 저와 자원봉사자 대학생 한 사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재활센터와 과천시장애인복지관, 종로장애인복지관, 종로아이존 등 5개 기관을 운영하는 장애인을 위한 재활치료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오늘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푸르메재단을 믿고 지지해주신 수많은 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암수술을 받은 할아버지가 재활치료를 받지 못해 발을 구르는 모습을 보고 재단 후원을 시작한 초등학교 소은영 양은 이제 대학생이 됐습니다.



장애환자의 아픔을 잘 아신다며 큰 기금을 보내주신 이철재 사장님과 출판된 책의 첫 인세를 기부해 주신 소설가 고 박완서 선생님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고마운 후원자님들이 계십니다. 넥슨, KB금융, 신한은행, SK텔레콤, SBS, 현대자동차 등 80개가 넘는 기업들도 푸르메재활센터 건립에 뜻을 모아줬습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푸르메재활센터가 개원한지 불과 몇 개월이 안됐지만 벌써 많은 어린이들이 치료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어린이들은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세워지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단의 올해 소망은 마포 DMC단지 옆 1,000평의 부지 위에 어린이들을 위한 재활전문병원을 착공하는 일입니다. 이곳에 입원병원 뿐 아니라 장애인 청년들이 직업교육을 받고 취업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세우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비록 장애를 가졌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면 많은 어린이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희망을 주겠습니다. 무엇보다 투명하게 재단을 운영하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일하겠습니다. 푸르메재단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꼭 잡아주실 거지요?^^



푸르메재단 상임이사 백경학 드림

연혁 2012.

01



'김앤장(KIM&CHANG)' 세종마을 푸르메센터 건립기금 기부



이철재 기부자 장애어린이 재활시설건립기금 10억원 기부



2012년 저소득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사업' 개시



어린이재활병원 건립기금마련 '선과 함께하는 만원의 기적' 런칭



푸르메책꽂이 네번째 책 '조금 달라도 괜찮아' 출간



봄맞이 기부자 모임 '공작공작 나눔공작소' 개최



신경숙작가 어린이재활병원 건립기금 2,500만원 기부



현대백화점 키텍스점과 함께 한 자선바자회 개최

04



서경덕 교수와 가수 선이 함께하는 푸르메 토크콘서트 개최

07



세종마을 푸르메센터 개관

09



행복한 베이커리&카페 1호점 개점

푸르메 재활센터 개원식

10



가수 선, 어린이재활병원 건립기금 기부

11



참! 좋은 인연, '2012 푸르메재단 가족 연수'

12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아름다운 동전' 기부



기적이 피어나는 공간 '미라클 SNS'



푸르메 어린이 음악회 (넥슨과 함께하는 즐거운 크리스마스)



성악가 조수미, '만원의 기적' 동참 (어린이재활병원 건립기금 8,000만원 기부)



고사리 손으로 이뤄가는 기적 (루마 기독교창의교육원 및 놀품자연유치원 어린이들 기부)

이사진



김성수 이사장(우리마을 촌장 / 前 성공회대 총장)

배재고, 연세대 신학과, 성공회 성미카엘 신학원에서 공부한 후 1964년 대한성공회 사제서품을 받고 대한 성공회 초대 관구장을 역임한 뒤, 성공회대학교 총장으로 재임했습니다. 현재는 지적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인 강화우리마을 촌장입니다.



강지원 공동대표(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대표)

경기고, 서울대 정치학과, 1976년 18회 사법시험을 수석합격한 뒤 전주 및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지냈습니다. 서울보호관찰소장을 맡으면서 청소년문제에 관심을 가져 문화부와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 초대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김용해 공동대표(서강대 신학대학원장)

목포고, 전남대 법학과, 1986년 한국예수회에 입회했습니다. 1988년 서강대학원에서 철학을 전공한 뒤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신학과 철학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 서강대 신학대학원장으로 있습니다.



김문규 감사(신원회계법인 대표)

경북고, 외국어대 경제학과, 현재 신원회계법인 대표로 있습니다. 풀무원 사외이사를 역임한 뒤 (주)웹젠의 사외이사로 재직 중이며, 명지대학 겸임교수와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송재용 이사(푸르메재활센터 경영본부장 / 前 하이닉스 사외이사)

동아고, 서강대 무역학과, 1974년 한국외환은행 조사부 입사한 뒤, 독일외환은행 법인장, 지식경제부선정 무역부분 국가지식경제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학준 이사(단국대학교 이사장 / 前 동아일보 회장)

제물포고, 서울대 정치학과 및 대학원, 1964년 조선일보사에 입사한 뒤 1980년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국회의원,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단국대학교 이사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원택스님(부산 고심정사 주지 / 前 백련 문화재단 이사장)

경북고, 연세대 정외과, 1972년 성철스님의 문하로 출가했습니다. 1987년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도서출판 장경각 대표, 조계종 총무부장을 역임한 뒤 현재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안국정 이사(前 SBS 대표이사)

경남고, 서울대 사학과, 1970년 KBS PD로 입사, SBS 제작본부장 및 편성본부장을 거쳐 SBS 대표이사를 역임했습니다. 1983년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프로를 기획해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했습니다.



이정식 이사(뉴스 1 사장 / 前 CBS 사장)

경북고, 서울대 사범대 지리학과, 1973년 CBS에 입사, KBS기자로 일한 뒤 다시 CBS로 돌아와 정치부장, 워싱턴 특파원, CBS 사장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뉴스1 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문창진 이사(치과대학 보건복지대학원장 / 한국건강증진재단 이사장)

경남고, 서울대 사회학, 시카고대학원 사회학박사, 보건복지부 공보 총무과장을 거쳐 사회복지 정책실장, 차관을 역임했으며, 현재 CHA의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교수 및 한국건강증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윤태 이사(함께걸음생활협동조합 이사장 / 가톨릭대학교 재활의학교실 부교수)

가톨릭의대, 현재 가톨릭대학교 재활의학교실 교수로 의정부 성모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일하며,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이사, 노원 함께걸음의료생협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기 이사(아시아엔 발행인 / 前 아시아기자협회 회장)

한국외국어대 영어과와 서울대 서양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88년 한겨레신문에 입사한 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기자협회 회장을 맡았으며, 현재 아시아엔 발행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인숙 이사(건축사사무소 다리건축 대표 / 한양대 겸임교수)

정신여고, 한양대 건축공학과, 성균관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독일 뮌헨대와 뮌헨공대에서 미술사학 및 문화재학을 연구했습니다. 중국 베이징 국제레저센터 Willows, 상하이 세계명인성 마스터플랜, 경기도 광덕사등을 설계했습니다.



백경학 상임이사(푸르메재단 상임이사 / 前 CBS, 동아일보 기자)

연세대 사학과, CBS와 한겨레신문, 동아일보에서 기자로 일했습니다. 독일 뮌헨대 정치학과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수학했습니다. 2010년 연세사회봉사대상을 수상했고, 동아일보가 선정한 '2020년을 이끌어 갈 100인'에 선정되었습니다.

홍보대사



엄홍길(산악인)

“에베레스트에 오르는 마음으로 푸르메 병원이 건립되는 그날까지 도전!”

한국이 낳은 세계 최고의 산악인으로 세계 최초로 16좌를 완등했습니다. 동상 때문에 발가락 일부를 절단하게 된 엄홍길 대장은 “나도 장애인”이라면서 “재활이 필요한 장애인들, 특히 장애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청소년 백두산 등반, 네팔미소원정대, 한라산 등반, 성곽길 탐험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깊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선(가수)

“사랑은, 누군가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 주는 겁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힙합 가수에서 이제 많은 어린이들의 아버지가 되길 자처한 선. 전 세계 아이들을 800명이나 후원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대한민국 10만 장애어린이의 손을 잡으려 합니다. 1일 1만 원씩 기부하는 ‘만원의 기적’ 캠페인을 온·오프라인에서 헌신적으로 진행하며 장애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현실화 하고 있습니다. 2013년 2월, ‘만원의 기적’ 캠페인 1주년을 기념한 콘서트를 준비 중입니다.



이지선(작가)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물을 이루듯 정성을 모아주세요.”

2005년부터 활동한 푸르메재단 홍보대사 1호입니다. 뉴욕 마라톤 완주(2009), 서울국제마라톤(2010) 완주 및 이지선 천사기금도 마련하였습니다. 2012년 부터 매월 11일 ‘애정남녀’ ARS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 UCLA에서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중입니다.



서경덕(홍보전문가)

“장애어린이들이 행복해지는 세상을 위해 지치지 않고 뛰겠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홍보전문가로 푸르메재단의 공익광고를 제작해 재단이 조금 더 쉽게 대중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만원의 기적 토크 콘서트’(2012년 4월, 9월)에 사회자 및 게스트로 참여하며 대외적으로 푸르메재단을 알리는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황혜영(방송인)

“아름다운 나눔으로 장애어린이에게 희망의 날개를 달아주세요!”

방송인 황혜영 씨는 남편 김경록 씨와 함께 푸르메재단의 미소원정대(치과 치료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후에도 본인이 운영하는 쇼핑몰 운영 수익금 중 일부를 기부하고, ‘작은 음악회’(2011)가 열렸을 때 의류를 기부하는 등 따뜻한 마음을 보여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김세진(수영선수)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치료 받을 수 있는 예쁜 병원을 지어주세요.”

8세 때 의족으로 단축 마라톤을 완주하고 9세 때 미국 로키 산맥 등정에 성공, 2009년 19세 미만 세계장애인수영선수권대회에선 3관왕을 차지 했습니다. 한국 장애인 수영의 기대주인 김세진 군(15)은 성균관대 스포츠학과에 최연소로 합격하기도 했습니다. “장애인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널리 알리고 싶다는 공부, 운동, 강연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안지영 (푸르메 키즈)

“참 고맙습니다.”

초등학생인 안지영 어린이는 오랜 시간 푸르메재활센터를 이용하며 푸르메재단의 얼굴이 되어 재단 광고 촬영 및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건강해질수록 많은 어린이들에게 희망이 되기에 2012년 푸르메 키즈로 선정되었습니다.

살림살이

2012 결산보고

■ 수입현황

구분	금액(원)	내역
지정기부금수입	4,199,906,728	재활치료시설건립 및 운영기금. 지역사회재활시설건립 및 운영기금. 배분사업기금. 외부지원사업기금. 기타지정기금
비지정자기부금수입	237,789,424	비지정기금
현물수입	512,276,295	현물기부수입
기타수입	672,794,671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계	5,622,767,118	

세종마을 푸르메센터 건립에 따른 기업 및 고액개인기부자 증가로 지정기부금에 대한 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캠페인(선과 함께하는 만원의기적)으로 인하여 재단의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약 66% 증가하였습니다. 현물기부는 대부분 치과 치료를 위한 치공물 및 문화나눔을 위한 티켓기부, 그리고 언론매체의 재능기부(재단 무료 홍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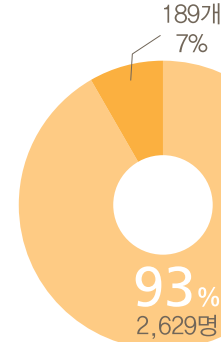
■ 지출현황

구분	금액(원)	내역
목적사업비	825,471,720	재활치료시설건립. 지역사회재활시설건립비 등
모금사업비	2,027,840	
배분사업비	332,131,288	정기배분사업비 등
기부자개발 및 관리	85,640,510	
재산조성비	4,582,482,750	세종마을푸르메센터건립비 등
운영비	631,553,053	재단운동을 위한 인건비 및 기타비용
계	6,459,307,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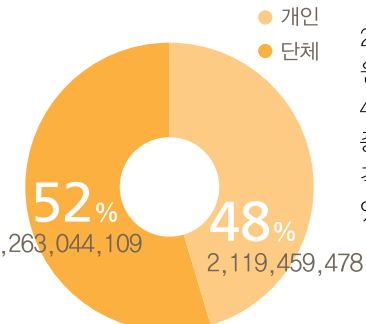
2012년에는 세종마을 푸르메센터가 건립되어 재산조성비(사용수익 기부자산) 지출이 증가했고,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 운영을 위한 산하시설 전출금도 증가했습니다. 보조기구지원사업 및 찾아가는 미소원정대(외부지원)사업 등 장애인 지원사업도 확충되어 전체 지출이 전년도 대비 약 36% 증가하였습니다.

2012 기부현황

■ 기부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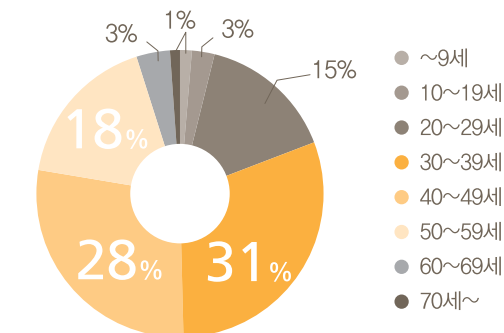


■ 기부금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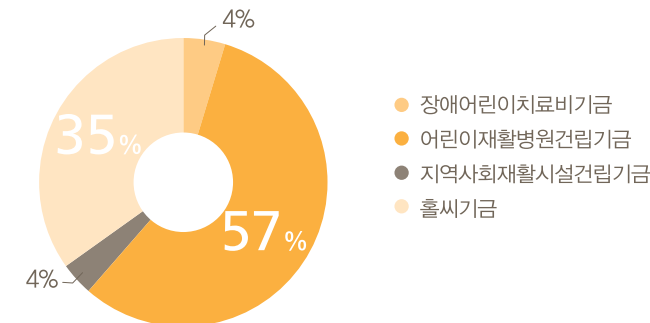
2012년에는 총 2,818명의 기부자와 단체가 4,382,503,587 원을 기부했습니다. 기부자 현황은 개인이 93%로 기부금액의 48%, 단체가 7%로 기부금액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종마을 푸르메센터가 문을 열고 어린이재활병원건립 캠페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많은 분들이 큰 마음을 보태주신 2012년이었습니다.

■ 연령별 기부자분포



2012년 푸르메재단의 메인 캠페인 “만원의 기적”의 영향으로 10대와 20대 기부자수가 다른 해에 비해 상당히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이전까지는 10대 이하 기부자의 기부가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었는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용돈을 나누는 아름다운 10대 기부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 기금별 기부현황



푸르메재단에 다양한 목적사업을 위하여 많은 분들이 정성을 모아주셨습니다. 2012년도에는 어린이재활병원 건립기금이 기부금액의 57%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장애인 재활과 자립 활동을 지원하는 홀씨기금(35%)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기부자 한 분 한 분 마음이 모여 기적을 만들고 있습니다. 푸르메재단이 꿈꾸는 장애인 재활과 자립을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기부자분들을 기억하며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금소개

■ 푸르메홀씨기금

장애어린이들의 재활을 지원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필요한 모든 사업의 기반이 되는 기금입니다.

■ 지역사회재활시설건립 및 운영기금

재활을 통해 건강한 삶을 되찾는 과정이 지역사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활시설을 건립합니다. 건립 이후에는 치료와 교육을 통해 직업을 준비하고 자립할 수 있게 하는 충실한 서비스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 잔디기금, 주춧돌기금, Re-Born기금, SBS사회공헌기금, 이철재희망샘기금, 선인유니텍아이(Eye)기금, 이토마토헤탈증식기금, KB어린이재활센터건립기금, 신한은행나눔치과건립기금, 인세기금, 210새봄기금, 노부부동행기금, 배영일GOOD-WILL기금, 100인후원회기금 등

■ 재활치료시설건립 및 운영기금

제때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재활병원을 짓는 기금입니다. 질 높은 치료를 통한 회복 뿐 아니라 지역사회로 돌아가 자립을 준비하는 단계까지 함께 고민하고 준비하는 병원을 만들어 운영하고자 합니다.

－ 어린이재활병원기금, 만원의기적, 천원의기적, 이지선1004희망기금, 사랑의연탄기금, 김홍주1%기금, 아름스기금, 성현메디텍기금, 화성시기금, 민사고G4기금, 천치人氣금, SK희망마라톤기금, 우리은행행복더함기금 등

■ 배분사업기금

치료에서 교육, 자립에 이르기까지 장애인과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 지원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재활치료비, 맞춤형보조기구, 교육, 문화활동의 기회 등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장애어린이천사기금, 나눔치과치료지원기금, 어깨동무기금, 이중복희망나무기금, 보조기구지원기금, SPC행복편드기금 등

■ 기타지정기금

장애인과 가족에게 재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책을 발간하거나, 장애 당사자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기회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목적을 위해 사용합니다.

－ 연구 및 교육기금, 출판기금, 옥tober웨스트복지기금, 최종석출판기금 등

■ 명예기금

강지훈기금, 김성수기금, 감동의 마라톤기금 외 44개

"당신이 있어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 합니다"

기업(단체)

(재)외환은행나눔재단 (재)창문장학회 (주)교보문고 (주)금화PSC (주)넥슨 (주)밀다원 (주)벤처캐슬 (주)상현상사 (주)샌드팜 (주)샤니 (주)선인유니텍 (주)성일화학 (주)성현메디텍 (주)세전 (주)에그팜 (주)에스피씨캐피탈 (주)엔엑스씨 (주)예감 (주)우리은행 (주)운잠캐슬 (주)위제너레이션 (주)은아필름 (주)이토마토방송 (주)코스콤 (주)티브로드 동대문방송 (주)티브로드강서방송 (주)티브로드광진성동방송 (주)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 (주)티브로드서대문방송 (주)팀퍼티쳐 (주)파리크라상 (주)해커스어학연구소 74블루스피릿 AN-KIDS ARS전화모금 Capt.G** HILL INGMDRT INOUE SATOKO J미디어커뮤니케이션 J여성의원 KB국민은행 KB국민카드(주) KB 데이터시스템 KB생명보험 KB 신용정보(주) KB인베스트먼트(주) KB투자증권(주) making friends PH치과기공소 PNS SITI RISZIANA BINT SPC V원정대 WRotary YMCA 강동구청 건축사사무소지오 골디락스튜디오 골목길 광운대학생들 광화문 교보생명 권지웅 서포터즈 규장&갯피플 길종합건축 김앤장 꿈샘유치원 나린세무회계사무소 나비디자인 뉴발란스마라톤 뉴스토마토 놀품자연유치원 다일복지재단 대영청사진 대한사회복지회 대한약침학회 더봄 더착한커피 더착한커피 광흥차점 도미노피자 도서출판부키 동광한의원 동방노보팜(주) 동아예술대 동의대학교 동전모금함 두이레두피센터대구점 드라마산부인과 드림찬양팀 디오브루잉(주) 따뜻한동행 럭키세븐 로즈베이 루마기독교창의교육원 루비코 루이비통코리아(주) 리틀쑈시에 릴선 마스타치과기공소 마이크로브루어리 명문한의원 무학교회바울공동체 미소원정대2012 법무법인한누리 법무사주도숙사무소 보령중보재단 보리네 보미종합건설 본동삼성래미안입주자 분도출판사 블루베리 블루스톤 비알코리아(주) 사단법인은빛날개 사회복지법인에스피씨행복한재단 삼립식품 삼성자산운용 삼화모터스(주) 서울모금회 서울세관본부 서울여대 수치과기공소 순복음원당유아부 순천성결교회 시드물화장품 신스커피하우스 신영증권 신일유치원 아탈 에스앤제이이노베이션 에스피씨(주) 에스피씨네트워크 에스피엘(주) 엑시무 연예인 연합예배 예수를업고가는아프리카당나귀팀 예수사랑교회 예손치과 옥tober웨스트홍대 올리사랑 우리은행이팀 우리은행화정역점 우슬초울산교회 웰빙마트 위드원인베스트먼트 이가종합건축사사무소 이마스터덴탈허브 이태원동물병원 인천공항바비브라운 일산코앤키한의원 정광피엔아이주식회사 제이인터네셔널 조은수학원원 주식회사리버스컴퍼니 척수손상재활치료학회 천인테리어 천지세무법인 청구회 청주교대 충신대학교 카페풍당 커피조이 커피즐거찾기 코오롱비니트BPO본부 통의동우체국 통인감자탕 특허법인코리아나 페인팅레이디디자인 포미넷 포에버의원 표창원과함께하는범죄없는세상만들기 푸르메나눔치과 하모니87-91 하미모 한국아나운서연합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컴패션 한무쇼핑(주)킨텍스 한일장신대 해피빈 행복한베이커리&카페 현대월치과의원 홀트아동복지회 홍성사 화도광성교회청소년부 화랑종합체육관 화성시보건소 휴먼케어

개인(가나다 순)

2PM JJ&HJ 갈수연 강 현 강가람 강가수 강경숙 강경우 강경희 강규리 강금아 강나래 강난희 강다슬 강다정 강대인 강동철 강동현&강지민 강동훈 강명기 강명희 강문희 강미란 강미애 강서영 강석범 강선상 강성순 강성희 강소희 강송희 강수권 강신혁 강신혜

강여진 강예훈 강오진 강유라 강유빈 강윤숙 강은비 강은향 강은희 강인황 강재민 강정 강정미 강주홍 강지영 강지우 강지원 강지현 강지훈 강채룡 강태의 강현석 강현순 강현아 강현옥 강현욱 강현정 강형동 강형민 강혜빈 강혜정 강호출 강화구 강희숙 강희일 건자영 경가람 경여울 계승균 고길희 고다솜 고다현 고동일 고명한 고범진 고상미 고성호 고세미 고영빈 고영일 고영진 고원경 고유경 고은 고은비 고은정 고재균 고재춘 고정욱 고정환 고정훈 고지수 고창덕 고태진 고필권 고현경 고현진 고효진 고희정 공기선 공병조 공정미 공희정 광다연 광민정 광부경 광선희 광연희 광은정 광이섭 광재복 광재승 광태선 광혜선 구나영 구다영 구둘래 구명숙 구미영 구소연 구수림 구숙희 구자석 구재희 구정희 구지민 구지연 구행자 구현 국승빈 권경화 권기봉 권기수 권대길 권동훈 권미현 권미혜 권민철 권범석 권병렬 권성태 권성하 권수경 권애영 권영숙 권오신 권오현 권윤원 권은경 권은자 권은정&조효제 권은지 권정숙 권준원 권지수 권지용 권지은 권하린 권혁민 권혁욱 권현미 권현정 권혜자 금창성 기완중&이미자&기드온&기사무엘 기종림 길지연 김가람 김가은 김감남 김갑봉 김갑수 김강수 김건우 김경령 김경만 김경미 김경민 김경배 김경범 김경석 김경수 김경숙 김경아 김경애 김경옥 김경우 김경은 김경중 김경진 김경한 김경화 김경환 김경훈 김경희 김광덕 김광미 김광수 김광식 김광욱 김국진 김귀은 김금옥 김기선 김기영 김기주 김기태 김기현 김기훈 김나경 김나뱃 김나영 김남우 김남희 김내아 김다혜 김단비 김대기 김대영 김대진 김대현 김덕현 김도균 김도엽 김도영 김돈겸 김동경 김동규 김동석 김동섭 김동은 김동진 김동하 김동현 김동형 김동호 김동희 김두승 김두현 김두환 김라미 김명기 김명수 김명은 김명자 김명진 김명치 김묘진 김문규 김문자 김미경 김미나 김미동 김미라 김미선 김미성 김미숙 김미순 김미애 김미연 김미영 김미정 김미진 김민관 김민국 김민서 김민서 김민선 김민영 김민영&김영근&박경신&김남연&권우철 김민용 김민재 김민정 김민주 김민준 김민지 김민채 김민철 김민혁&김민서&김민혜 김민형 김민희 김바램 김방선 김배훈 김범수 김병수 김병완 김병용 김병일 김병준 김병직 김보경 김보라 김보라미 김보람 김보영 김보옥 김보희 김복수 김복주 김복희 김봉진 김봉희 김분이 김분현 김분희 김상균 김상기 김상미 김상수 김상욱 김상윤 김상일 김상철 김상현 김상협 김서림 김서영 김서윤 김서는 김석규 김석웅 김선규 김선영 김선호 김선희 김성규 김성근 김성기 김성배 김성보 김성봉 김성숙 김성식 김성신 김성은 김성자 김성탄 김세권 김세리 김세림 김세은 김세정 김세진 김세희 김소라 김소연 김소영 김소저 김소정 김소현 김소희 김솔아 김송이 김송희 김수경 김수남 김수미 김수민 김수병 김수빈 김수열 김수영 김수정 김수진 김수현 김숙연 김숙정 김숙좌 김순복 김순영 김순화 김순희 김솔기 김승일 김승중 김승택 김승호 김승환 김승훈 김승희 김시형 김신 김아름 김아연 김아영 김애영 김애정 김양수 김언정 김여환 김연석 김연숙 김연우 김연준 김연중 김연태 김연희 김영 김영기 김영명 김영민 김영삼 김영식 김영아 김영욱 김영자 김영재 김영준 김영지 김영택 김영한 김영희 김예나 김예린 김예원 김예인 김예진 김옥경 김옥주 김옥채 김완봉 김외경 김용 김용길 김용대 김용석 김용선 김용섭 김용수 김용암 김용철 김용해 김용호 김용화 김우석 김우연 김욱 김욱진 김웅수 김위나 김원빈 김원욱 김원한 김원호 김유경 김유리 김유미 김유빈 김유신 김유진 김윤경 김윤서 김윤수 김윤식 김윤아 김윤양 김윤철 김윤희 김은경 김은미 김은성 김은숙 김은양 김은영 김은정 김은주 김은지 김은지&양혜민&정현희 김은진 김은태 김은혜 김은화 김은환 김은희 김의숙 김이선 김인관 김인숙 김인순 김인아 김인옥 김인진 김인혁 김인희 김일석 김자연 김자영 김장환 김장훈 김재경 김재곤 김재덕 김재철 김재형 김재호 김재훈 김재희 김점례 김정미 김정민 김정백 김정상 김정수 김정숙 김정순 김정연 김정우 김정의 김정인 김정임 김정진 김정한 김정환 김정훈 김정희 김제수 김종근 김종길 김종만 김종명 김종민 김종섭 김종우 김종운 김종진 김종철 김종호 김주기 김주명 김주영 김주용 김주원 김주찬 김주한 김주희 김준구 김준수 김준순 김준영 김준형 김준환 김지민 김지선 김지연 김지영 김지원 김지은 김지혜 김지훈 김진명 김진선 김진수 김진숙 김진승 김진아

김진영 김진우 김진우 김진웅 김진원 김진현 김진희 김창수 김창숙 김창운 김창호 김천인 김천환 김철기 김철웅 김철홍 김철훈 김충부&최숙자 김치호 김택현 김태균 김태수 김태순 김태식 김태신 김태영 김태은 김태정 김태진 김태한 김태형 김태하 김태환 김태훈 김태희 김필원 김하늘 김학근 김학운 김한겸 김한나 김행덕 김향숙 김현경 김현기 김현석 김현선 김현성&김경심 김현수 김현숙 김현아 김현오 김현욱 김현정 김현주 김현중 김현중 김현진 김현철 김현태 김현희 김형권 김형대 김형식 김형우 김형주 김혜경 김혜란 김혜련 김혜미 김혜숙 김혜순 김혜연 김혜원 김혜정 김혜진 김홍규 김홍성 김홍주 김화숙 김화영 김화자 김화준 김화진 김환 김환희&최윤석 김효림 김효미 김효선 김효순 김효심 김효영 김효은 김효정 김효정 김효진 김휘주 김희경 김희란 김희선 김희성 김희수 김희숙 김희엽 김희정 김희준 김희진 김희창 나선경 나선미 나성연 나영경 나윤경 나태웅 남궁보금 남궁준 남궁철 남기정 남기한 남미숙 남보라 남성복 남승우 남영희 남윤경 남윤정 남은정 남지는 남현진 노무라모토유기 노민영 노성단 노성희 노슬기 노시윤 노연희 노은지 노은화 노인철 노준명 노지현 노채록 노효성 닉쿤 홍광일 도은경 도지현 도현아 도현철 두정희 두진경 라이문 드로이어 루시아회 류경화 류권규 류기석 류도균 류동걸 류동하 류동한 류성준 류순임 류영석 류은주 류인범 류재민 류재희 류종걸 류지양 류지은 류지한 류지현 류진하 류현진 리정영 마술 마은애 마지술 맘스82 김태은 맘스82 마유빈 맘스82 박세환 맘스82 박준웅 맘스82 보빈 맘스82 신한울 맘스82 최이준 맹찬형 명다혜 모규환 목현주 문기덕 문동섭 문벌 문병일 문상돈 문상중 문상진 문석희 문선희 문성호 문수억 문영란 문영숙 문영주 문영희 문요람이 문유진 문정수&정이랑 문정애 문정현 문중현 문지선 문한선 문현웅 문형남 문혜경 민경미 민병림 민병일 민소현 민수기 민순기 민용태 민지영 민하영 민한음 민형진 민혜경 박경석 박경숙 박경은 박경준 박경표 박경필 박경희 박광혁 박규진 박균배 박근숙 박근영 박근하 박근환 박근희 박금숙 박금순 박기석 박기승 박기용 박기태 박나예 박대곤 박대석 박대연 박대운 박동범 박동철 박동호 박동환 박두억 박명화 박명희 박묘선 박문현 박미라 박미선 박미송 박미숙 박미아 박미연 박미혜 박민선 박민정 박민준 박병길 박병수 박봉희 박분희 박비호 박사랑 박사한 박상규 박상미 박상수 박상우 박상원 박상은 박서우 박서윤 박서정 박서진 박석근 박선미 박선아 박선영 박선우 박선유 박선희 박성식 박성용 박성일 박성현 박성혜 박성훈 박세나 박세숙 박세영 박세원 박세진 박세택 박소연 박소영 박소윤 박소현 박수근 박수아 박수완 박수용 박수진 박수혜 박순석 박순애 박솔우 박승룡 박승천 박시현 박양숙 박연경 박연복 박연우 박영남 박영묵 박영순 박영식 박영욱 박영희 박예은 박예진 박옥희 박요나 박용성 박용수 박용철 박웅 박원춘 박유진 박윤 박은미 박은비 박은숙 박은용 박은주 박은희 박의숙 박인경 박인선 박인숙 박인철 박인호 박일란 박재서 박재완 박재원 박재홍 박점식 박정숙 박정심 박정에 박정연 박정욱 박정은 박정임 박정현 박정호 박제언 박제준 박종관 박종균 박종숙 박종순 박종은 박종필 박종해 박종현 박종호 박종환 박주미 박주성 박주연 박주영 박주현 박주환 박주희 박준성 박준용 박준현 박준호 박준희 박종원 박지선 박지영 박지예슬 박지원 박지윤 박지은 박지현 박지혜 박지호 박진배 박진빈 박진우 박진형 박진희 박찬미 박찬이 박찬호 박창노 박창신 박창희 박채련 박천호 박철 박철우 박철웅 박철홍 박탐희 박태균 박평범 박하나 박하나 박하은 박한나 박한솔 박현영 박현욱 박현규 박현숙 박현아 박현영 박형길 박형준 박형진 박혜경 박혜란 박혜미 박혜민 박혜선 박혜수 박혜숙 박혜인 박혜진 박호영 박호진 박화용 박효범 박효섭 박훈 박희경 박희숙 박희환 반은미 방경란 방기정 방실 방태일 방호권 배기완 배미정 배병철 배수강 배수진 배송수 배유경 배윤서 배은경 배은숙 배은호 배지영 배철영 배현업 백경학 백다은 백동현 백미옥 백민주 백민지 백봉국 백봉숙 백상현 백선영 백선우 백순엽 백송기 백승대 백영기 백영림 백우현 백운학 백원미 백윤영 백은영 백종남 백주현 백지숙 백지연 백진규 백태현 백해림 범현주 변미숙 변상욱 변수민 변영철 변재희&이지원 병철환 북대니얼 봉지현 빈충환 뽀라라 빼악이 사양순 서경 서경덕 서경주 서관석 서규범 서기현

서동락 서동화 서미희 서민혜 서복희 서석균 서세하 서숙 서승비 서승연 서승욱 서연재 서연희 서영우 서영훈 서오영 서용님 서유정 서은숙 서은정 서인석 서인영 서재균 서재학 서점욱 서정민 서정욱 서지연 서지원 서지희 서채운 서현지 서혜원 석근호 석기석 선미라 선미애 선현구 설미영 설순단 설영희 설중수 성계화 성금자 성민희 성세웅 성영란 성은승 성은아 성은혜 성지안 성진호 성흥현 선 선&정혜영 소기호 소정민 손경자 손광준 손근필 손기철 손민수 손범규 손성원 손영휘 손주현 손주혜 손지연 손지혜 손찬송 손찬익 손현숙 손혜연 손호석 손희정 송경숙 송경아 송경진 송고운 송기쁨 송나은 송명익 송미경 송서영 송선미 송성호 송소연 송송이 송숙경 송아름 송영근 송영미 송영지 송용기 송우진 송우현 송원의 송유경 송유림 송유수 송유진 송은영 송은이 송은주 송이령 송인경 송재용 송정미 송정현 송주영 송준근 송지호 송현순 송현정&최상호 송현진 송혜경 송혜민 신경숙 신계륜 신광영 신광호 신광훈 신고정 신그림 신기리 신덕희 신도현 신동우 신동일 신동호 신미라 신민섭 신민희 신봉선 신상규 신상길 신상돈 신상철 신선미 신선혜 신섭 신소영 신소윤 신수진 신승오 신아영 신양수 신연지 신연희 신영각 신영록 신영미 신용석 신용순 신은 신은경 신은정 신인경 신재은 신재화 신정란 신정원 신정이 신정자 신정현 신지선 신지수 신지윤 신지은 신지현 신지혜 신창현 신채용 신천순 신하영 신흥규 신흥식 심문영 심상휘 심서현 심선미 심순욱 심승선 심영규 심영애 심은자 안가영 안경화 안대섭 안덕자 안동식 안민주 안범수 안보현 안상준 안서연 안석근 안선영 안소연 안승현 안아름 안영미 안외정 안윤희 안은미 안은희 안재윤 안정은 안정현 안준상 안지현 안찬식 안철희 안치권 안태균 안태정 안혜숙 안혜원 안희주 안희준 양경란 양경화 양경희 양광진 양나리 양문영 양미숙 양미정 양민석 양민수 양새봄 양서윤 양승수 양승원 양승진 양שמ 양윤희 양은미 양은화 양인혜 양정선 양정식 양정애 양정인 양종구 양준수&김보라 양지영 양창순 양혁진 양현주 양희순 양효진 양희라 어은경 엄경자 엄민숙 엄수정 엄신정 엄예슬 엄인성 엄정현 엄지원 엄지현 엄지혜 엄철민 엄홍길 엄효선 여규병 여무의 연보라 연준혁 엄혜리 엄혜선 예수진 예지원 오감석 오경은 오관택 오권수 오도영 오동희 오민희 오산택 오상욱 오상훈 오션 오수민 오승석 오승완 오영신 오영주 오용화 오윤미 오윤희 오은경 오은미 오은주 오은화 오재정 오재향 오정민 오정선 오정혜 오지은 오진권 오하은 오한나 오혁진 오현무 오현숙 오호진 옥택연 온가영 왕유선 우경희 우광식 우단희 우동백 우리화 우세움 우안숙 우영애 우은경 원경희 원근희 원애욱 원영화 원유정 원재&연재 원투플라이 원택스님 원현숙 원화용 위하늘 위하은 유경민 유광미 유다혜 유덕순 유로경 유미현 유세정 유송자 유승연 유승엽 유승현 유시용 유아인 유아현 유안순 유열 유영덕 유영신 유영은 유영인 유영재 유영주 유예지 유은미 유인나 유자영 유재숙 유정 유제욱 유종연 유종우 유지은 유진건 유진명 유진숙 유창수 유태경 유현재 유혜민 유혜연 유혜원 유혜인 유혜진 유환일 유효정 유희순 육병균 육지애 윤경호 윤나리 윤나은 윤명세 윤미경 윤미은 윤병규 윤병선 윤서희 윤선경 윤선미 윤선희 윤성혜 윤성희 윤소영 윤순현 윤승렬 윤애란 윤연식 윤영진 윤예송 윤옥진 윤용찬 윤원주 윤은주 윤의숙 윤재선 윤재영 윤정원 윤정은 윤정희 윤종원 윤지나 윤지수 윤지혜 윤창환 윤채연 윤채원 윤태원 윤하나 윤하람 윤하진 윤현정 윤호규 윤호식 윤호전 윤희람 윤희선 윤희숙 윤희진 은재원 이가영 이가은 이가현 이강 이강명 이강춘 이경구 이경녕 이경두 이경란 이경민 이경범 이경복 이경선 이경순 이경아 이경자 이경진 이경희 이계주 이고은 이관숙 이광기 이광용 이광표 이권호 이귀욱 이규성 이규영 이규하 이근진 이근형 이근화 이금숙 이금임 이기쁨 이기열 이기완 이기운 이기웅 이기호 이기훈 이길형 이나경 이나윤 이남숙 이다은 이동기 이동수 이동용 이동주 이동준 이동현&임보나 이루빈 이명남 이명문 이명원 이명자 이명재 이명희 이문숙&서명찬 이문영 이문희 이미경 이미나 이미미 이미선 이미숙 이미애 이미지 이민복 이민영 이민우 이민웅 이민재 이민재 이민재 이민정 이민주 이민지 이민형 이민희 이병렬 이병무 이병천 이병희 이보라 이보람 이보애 이복미 이봉현 이산하 이산희 이상교 이상기 이상대 이상민 이상민&

박지은 이상봉 이상욱 이상윤 이상천 이상하 이사론 이서린 이서윤 이서현 이석봉 이석운 이석화 이선민 이선영 이선주 이선하 이선희 이성미 이성욱 이성원 이성울 이성재 이성조 이성종 이성호 이성호&이호열&이고은&이호석&김가은&현지향&김민정&이지나&김현석&이승엽 이성희 이세균 이소윤 이소진 이수경 이수광 이수연 이수영 이수정 이수진 이수현 이숙영 이숙자 이순영 이순우 이순자 이슬기 이슬이 이승건 이승만 이승묵 이승민 이승엽 이승재 이승철 이승택 이승한 이승현 이승환 이승훈 이승희 이시연 이시윤 이시은 이아람 이아름 이아영 이애진 이연식 이연조 이연화 이연희 이영란 이영미 이영선 이영섭 이영숙 이영순 이영실 이영애 이영웅 이영윤 이영인 이영화 이예경 이예은 이오식 이옥수 이옥자 이옥화 이옥희 이웅 이웅곤 이웅구 이웅길 이웅숙 이웅일 이우성 이우철 이우현 이원석 이원섭 이원식 이원이 이원재 이원희 이유미 이유진 이윤경 이윤미 이윤복 이윤아 이윤정 이윤희 이윤희 이윤희 이은경 이은성 이은숙 이은영 이은완 이은정 이은주 이은지 이은진 이은현 이은혜 이은희 이의연 이의정 이의희 이인걸 이인묵 이인순 이인순 이일영 이임수 이자욱 이재국 이재덕 이재상 이재성 이재식 이재연 이재원 이재철 이재현 이재호 이정근 이정란 이정림 이정모 이정미 이정민 이정선 이정숙 이정식 이정안 이정애 이정욱 이정임 이정혁 이정현 이정희 이종갑 이종경 이종교 이종만 이종수 이종안 이종인 이종택 이종호 이종훈 이주경 이주상 이주연 이주는 이주일 이주항 이주희 이준우 이준혁 이준호 이준호&유근애 이지경 이지민 이지선 이지양 이지연 이지영 이지창 이지현 이지혜 이지훈 이진 이진규 이진성 이진숙 이진우 이진웅 이진주 이진화 이진희 이찬미 이창곤 이창민 이창엽 이창원 이창환 이채영 이채원 이철균&신윤재 이철수 이철재 이철한 이청해 이초롱 이태영 이태희 이하늘 이하령 이하선 이하엘 이하연 이하규 이한별 이한영 이해연 이해인 이혁 이혁수 이현경 이현미 이현숙 이현실 이현아 이현영 이현욱 이현정 이현정 이현중 이현중 이현주 이현준 이형구 이형빈 이형원 이형준 이형진 이혜경 이혜림 이혜민 이혜선 이혜원 이혜자 이혜정 이호상 이호석 이호선 이호열 이호용 이환희 이효정 이효주 이효진 이희명 이희석 이희선 이희성 이희숙 이희승 이희진 인창욱 임다희 임동수 임명희 임미경 임미현 임병웅 임병진 임병호 임보람 임상준 임상모 임성묵 임성수 임성화 임소리 임수경 임승관 임승연 임승열 임아나 임연욱 임영호 임옥경 임옥규 임윤성 임윤순 임윤욱 임은숙 임은영 임은정 임응수 임창호 임재연 임재학 임재현 임정숙 임정주 임정진 임정진 임정희 임종승 임종욱 임주열 임준영 임지원 임지현 임지화 임진혁 임진희 임찬기 임찬수 임철성 임충혁 임하음 임한열 임현경 임현정 임형미 임혜원 임홍진 임홍태 임활규 장경수 장경의 장계심 장광섭 장광필 장규석 장규태 장근욱 장나희 장도영 장동욱 장민아 장병기 장보람 장보인 장복규 장상희 장석범 장석천 장석현 장성우 장성은 장세정 장소연 장소영 장순덕 장연희 장영근 장영주 장예원 장예은 장옥화 장용수 장우영 장은혜 장인순 장재균 장재만 장재훈 장정화 장정희 장중수 장종원 장준혁 장지우 장지윤 장지는 장지현 장학기 장학희 장해영 장혁 장현식 장혜인 장혜지 장효인 장희주 전관욱 전기남&이주영 전기호 전도영 전동건 전명배 전미경 전미연 전미영 전미옥 전민영 전부순 전상연 전선호 전성주 전성희 전수미 전순자 전영근 전영환 전용선 전원순 전유진 전은경 전은숙 전은영 전일수 전재향 전정희 전제민 전주현 전지인 전진 전찬 전태강 전평화 전하림 전현영 전형배 전형종 전혜란 전혜선 전해진 전홍미 전홍욱 전환희 전효정 전희진 정경순 정광섭 정광준 정광희 정권 정나리 정나영 정다연 정다영 정대성 정도순 정동민 정동주 정동희 정린컨 정말희 정명근 정문수 정문자 정미나 정미숙 정보연 정봉현 정부원 정상임 정서영 정서일 정서하 정선웅 정선희 정성진 정세현 정송희 정수경 정수아 정수진 정순욱 정순탁 정슬기 정승원 정아람 정아연 정연석 정연수 정연주 정영림 정영매 정영숙 정예영 정오승 정옥래 정용서 정용선 정용호 정우경 정원영 정유지 정유한 정윤미 정은미 정은선 정은혜 정은희 정인선 정인영 정일수 정재권 정재승 정재학 정재혁 정정연 정정택 정조국&김성은 정종화 정주희 정지숙 정지애 정지영 정지우 정지혜 정진경 정진수 정진우 정진원 정진택 정진홍 정창욱

정철환 정태섭 정태영 정하나 정한결 정한영 정해상 정현선 정현중 정현지 정현찬 정혜경 정혜영 정혜진 정혜현 정호승 정홍기 정
 황희 정효시 정효은 정흥채 정희경 정희연 정희욱 정희원 조가은 조강현 조강훈 조경란 조경식 조경호 조경훈 조기용 조남임 조대
 연 조라영 조마리 조무제 조미경 조미애 조미영 조미정 조미현 조민진 조백근 조범석 조보희 조봉석 조석준 조선욱 조선희 조성만
 조성애 조성우 조성자 조성환 조세영 조수연 조순이 조아라 조연악 조영선 조영현 조영희 조예빈 조옥형 조옥희 조우수 조유나 조
 유정 조윤정 조은경 조은비 조은빈 조은수 조은이 조은준 조은지 조은희 조익신 조재근 조재한&조하울 조정은 조정훈 조종민 조준
 상 조진만 조찬연 조창근 조철영 조태운 조하일 조하영 조한구 조하나 조한복 조한빛 조항연 조현성 조현숙 조현이 조현주 조형식
 조혜영 조휘준 조희 좌윤정 주대준 주리 주리랑 주민정 주범 주성경 주숙희 주영훈 주은경 주재석 주재운 주향금 주현도 지강원 지
 건화 지나실 지누선 지명환 지병석 진경연 진길재 진미경 진연호 진영중 진용우 진용희 진원미 진원정 진인정 진정자 진종선 진혜
 미 차동섭 차미현 차민혜 차승규 차승연 차승원 차우신 차은서 차은애 차인표 차장혁 차정미 차지영 차진선 차한울 차홍규 채명숙
 채민우 채상은 채승혜 채은진 채준호 채희태 천경자 천민혁 천샘 천세철 천소영 천승민 천영섭 천용의 천원필 천현서 최구하 최규
 선 최근영 최기남 최기원 최기주 최길상 최단비 최도용 최동욱 최루이 최만복 최명식 최명욱 최명원 최명호 최모순 최문 최문정 최
 미라 최미애 최미지 최민성 최민아 최민호 최보경 최봉규 최상광 최상원 최상훈 최서진 최석광 최석우 최석진 최선 최선경 최선란
 최선미 최선욱 최성곤 최성륜 최성림 최성미 최성은 최성재 최성환 최소울 최수는 최수정 최수중 최수한 최순선 최순애 최순욱 최
 순철 최승곤 최승호 최시은 최신영 최아영 최양근 최연진 최영범 최영수 최영환 최옥순 최외덕 최용찬 최우석 최원석 최원섭 최원
 용 최원준 최유경 최유진 최윤희 최은숙 최은영 최은혜 최인수 최인중 최인혜 최재연 최재영 최재화 최정미&송이령&최지현&이재
 성&김연태&이시은&이지후&김하준 최정숙 최정아 최정은 최정인 최정희 최종길 최종식 최종훈 최주희 최준식 최준호 최지안 최
 지영 최지원 최지인 최지현 최진 최진원 최진혁 최철희 최준자 최하나 최하연 최하영 최현경 최현민 최현영 최현주 최현지 최현진
 최혜경 최혜린 최혜림 최혜순 최혜연 최혜정 최혜진 최홍림 최효주 최희정 추만엽 추명희 추민지 추수미 추정림 추진식 추현준 타
 블로&강혜정 탁마리안 탁정윤 탁현정 편준규 포미닛 피승범 하민호 하성미 하성숙 하유경 하윤욱 하은희 하일식 하재희 하중배 하
 지영 하희라 한결 한경민 한경숙 한경아 한규관 한규아 한려원 한만원 한명숙 한문희 한미예 한민수 한민정 한보미 한상규 한상미
 한상영 한상오 한상진 한상표 한선규 한선미 한세희 한소라 한솔빈 한솔이 한승훈 한우하 한유선 한은지 한재우 한재일 한
 주현 한준영 한지오 한지혜 한찬희 한청택 한현정 한현주 한혜진 한화갑 한효은 한훈식 함석영 허근 허남경 허다빈 허단비 허명남
 허선무 허성조 허순희 허영미 허영진 허영호 허유빈 허은경 허이희 허일후 허재현&김하나 허중현 허지원 허진영 허호양 현우진 현
 은수 현지향 형보미 홍경미 홍경완 홍계신 홍기표 홍명진 홍미해 홍민경 홍사민 홍사승 홍사환 홍상표 홍석주 홍성욱 홍성인 홍성
 임 홍성재 홍세진 홍세희 홍수경 홍수관 홍순기 홍순철 홍슬지 홍영수 홍윤기 홍은숙 홍인숙 홍인아 홍정일 홍정화 홍제선 홍종현
 홍주의 홍주하 홍지민 홍진원 홍채윤 홍조롱 홍형택 홍희정 화성시 황경숙 황경훈 황관수 황금희 황능덕 황다남 황백화 황보국 황
 보윤정 황보정희 황석영 황선실 황선영 황성업 황성원 황수미 황수구 황순욱 황순하 황승욱 황시내 황시은 황연욱 황영선 황영철
 황옥경 황윤운 황우식 황우연 황윤덕 황은경 황은숙 황이순 황인숙 황인욱 황재근 황재필 황정욱 황정필 황정화 황종환&현지&교
 선&조해연 황준호 황진아 황찬성 황철호 황치조 황현실 황현애 황형준 황혜경 황혜신 황혜주 황혜진

푸르메재단이 건립 준비 중인

어 린 이 재 활 병 원

Purme Children's Rehabilitation Hospital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

매년 장애어린이 15만명에게 희망을 선물합니다! _ 75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을 소개합니다. _ 76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 여기까지 왔습니다. _ 78

장애어린이 가정을 돕는 어린이 재활병원을 짓겠습니다. _ 82

이래서 필요합니다. _ 86

같은 꿈을 꾸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_ 90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은 장애어린이들이 제때, 제대로 치료받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병원입니다.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 예상도

- 의료, 심리, 사회, 직업재활 등의 차별화된 통합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문가 팀 접근모델을 구축하여 포괄적인 전인재활을 실현합니다.
-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어린이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어린이들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 모든 의사결정에 장애어린이와 가족이 참여합니다.
더 나아가 장애로 인해 무너져가는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시스템을 마련합니다.
-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사후관리를 제공합니다.
장애어린이가 원활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퇴원 후, 다양한 기관의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푸르메어린이 재활병원

매년 장애어린이 15만명
에게 희망을 선물합니다!

푸르메어린이 재 활 병 원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을
소개합니다.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이 지어질 마포구 상암동 항공사진

2013년, 마포구에서 기부해주신 소중한 부지 위에 정성을 모아주신 기업과 개인 기부자분들의 뜻을 모아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을 건립하기 위한 첫 삽을 뜹니다.

- 치료대상 : 장애어린이, 청소년, 지역주민
- 이용인원 : 매년 15만명 (입원/통원 포함), 100병상
- 건립부지 : 마포구 상암동 DMC 인접 3,215㎡ (약 973평)
- 건축면적 : 지상5층, 지하3층 총 연면적 16,860㎡ (약 5,100여 평)
- 건립비용 : 400억원
(건축비 320억원, 기자재 및 초기운영비 68억원, 조사연구 기타 12억원)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은 이렇게 지어집니다.

5F	입원병동(병원학교, 부모교육실, 놀이발달실 등 포함)								
4F	입원병동 (병원학교, 부모교육실, 놀이발달실 등 포함)							자원봉사 센터 노인교실	
3F	낮병동 (그룹활동실, 부모쉼터 등 포함)				사무공간			다목적 강당	
2F	직업 상담실	보조 공학	소아 재활 치료실	청소년 재활 치료실	감각 통합	스누 젤린	언어인 지평가	언어 발달 센터	영어 도서관
1F	직업 훈련실	카페	외래 진료실 (소아재활의학/소아청소년과/ 소아정신과 등)				소아 치과	장애통합 어린이집	
B1	작업장	다목적 체육관		체력 단련실		샤워/ 탈의실		수중운동 치료실	수영장
B2	주차장			다목적식당			기계실		
B3	주차장						기계실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은 팀 접근을 통한 재활치료와 사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마련해 아이들의 적성에 맞는 직업 훈련을 제공하고 장애인들을 직접 고용한 작업장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장애어린이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 지원(복지) 공간들을 마련하여 지역의 장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 고자 합니다.

푸르메어린이 재 활 병 원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을
소개합니다.



푸르메어린이 재활병원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
여기까지 왔습니다.

2012년 푸르메재단은 병원 건립을 위해 이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재활의원과 복지관이 공존하는 세종마을 푸르메 센터



만원의 기적 홍보대사 선은 장애어린이를 위한 병원의 필요성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이용해 알려왔습니다.



재활병원의 모델이 되는 재활센터 감각치료실에 마련된 치료도구를 활용하여 장애어린이들이 효과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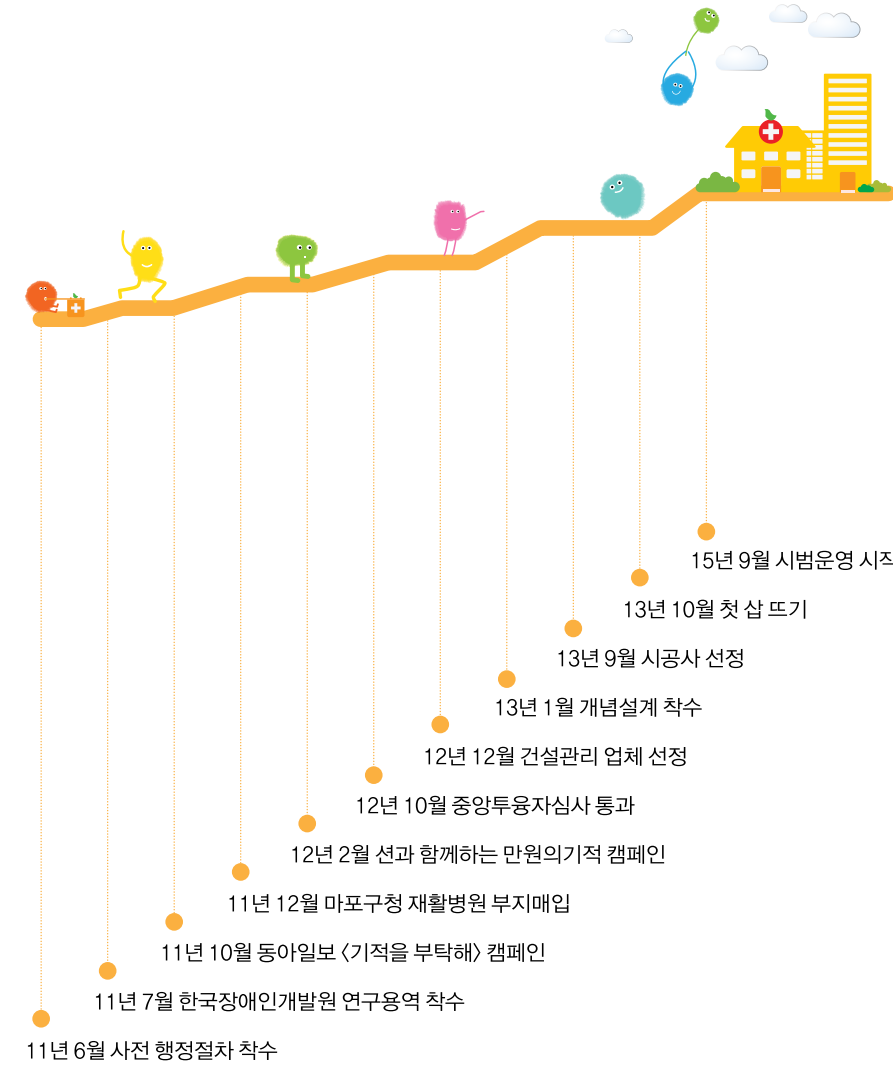


시민 모두에게 어린이재활병원의 필요성을 알리고 건립에 동참할 수 있는 모금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2012년 푸르메재단에서는 재활의원과 복지관이 공존하는 세종마을 푸르메센터를 준공하고 푸르메재활센터와 종로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 준공을 위해 푸르메재단에서는 적극적으로 장애어린이를 위한 전문 재활병원의 필요성을 알리고 '만원의 기적' 캠페인을 통해 기적의 병원을 짓는데 필요한 기금을 모금하며 관공서 분들을 만나고, 기업을 만나고, 소중한 개인 후원자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푸르메어린이 재활병원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
여기까지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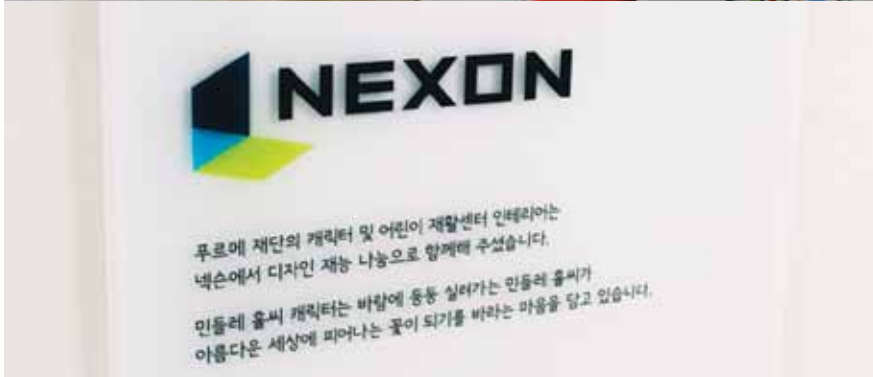


어린이 재활병원을 위해 여기까지 느리지만 숨차게 달려왔습니다. 2016년 병원에서 많은 장애어린이들이 즐겁게 치료받는 행복한 꿈을 꾸며 앞으로도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푸르메어린이 재활병원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
여기까지 왔습니다.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을 짓기 위해 이렇게 모금해왔습니다.



푸르메재단과 같은 뜻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부하고 있는 (주)넥슨

기부천사 선을 중심으로 '만원의 기적' 캠페인을 통해 2012년 한 해 동안 약 20억 원의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까지 약 250억 원의 기부금이 약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많이 모자라지만 이미 절반을 훌쩍 넘긴 이 고개에서 푸르메재단은 지치지 않고 열심히 달릴 것입니다. 장애어린이들이 비장애어린이들처럼 사회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온전히 해낼 수 있도록 하는 병원을 여러분과 함께 짓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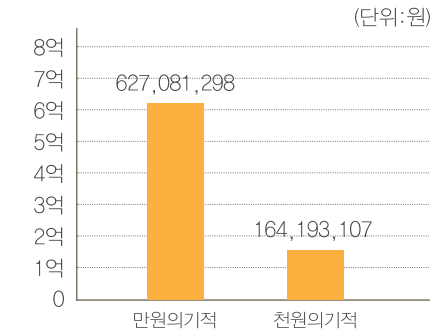
푸르메어린이 재활병원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하는 만원의 기적

많은 기부자들의 정성이 이어져 병원을 짓는 일이 차근차근 진행되던 2012년 2월 14일, 재단은 홍보대사 선과 함께 '만원의 기적'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만원의 기적은 1일 1만원씩 1년에 365만원을 기부해 어린이 재활병원을 짓는 일에 동참하는 캠페인입니다.

■ 기부현황



재단으로 도착한 수많은 기부증서들

장애어린이를 위한 기적의 천사가 되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재단은 여러분의 이름을 마음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만원의기적' 캠페인에 총 1,522여 명이 참여 의사를 밝혀 791,274,405 원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1일 1만원씩 365일간 365만원을 기부하는 '만원의기적' 은 627,081,298원의 기금이 모였고, 1일 1천원씩 365일간 36만5천원을 기부하는 '천원의기적' 은 164,193,107원의 기금이 모였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기적을 기대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기적이란 한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정성을 모으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기부해 주신 모든 분들께 마음 다해 감사드립니다. 재단은 2015년까지 '만원의 기적' 을 계속 진행하여 병원 건립 뿐 아니라 더 많은 장애어린이들이 치료를 받고 재활과 자립을 꿈꿀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원의기적” 홈페이지
<http://www.miracle365.org>

푸르메어린이 재활병원

장애어린이가정을 돕는
어린이 재활병원을 짓겠
습니다.

우리는 장애어린이의 사회 참여와 자립을 위한 전인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지으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비장애인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
는 사회재활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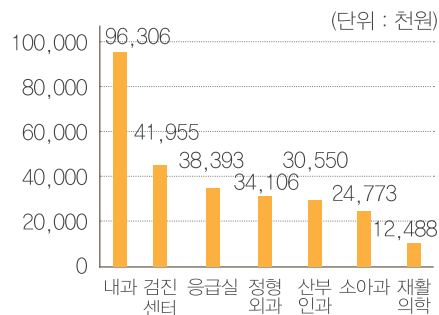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할 직업재활 서비스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은 장애어린이의 사회참여를 돕고 자립생활을 위한 전인재활 서비
스를 제공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의 장애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육과 기회를 제공하고 비장애인들과 함께 사회 속에서 열심히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자고 말이죠. 아이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은 나눔의 힘으로 운영되는 병원입니다.

■ 진료과별 100명상당 월 평균 외래수익



다른 과에 비해 재활의학과의 수익은 턱없이 부족
합니다. 그렇기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재활병
원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어린이 재활병원의
현실은 어둡기만 합니다.



중요한 일을 해야한다고 생각하시는 기부자님들
의 뜻과 의지를 모아 재단은 또 한 발 나아가려고
합니다. (친구를 위해 용돈을 기부한 유치원 어린
이들)

푸르메어린이 재활병원

장애어린이가정을 돕는
어린이 재활병원을 짓겠
습니다.

장애어린이를 위한 재활병원은 대한민국의 의료현실상 적자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실
유명한 대형 어린이병원들도 매년 60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 중이고 재활의학과는 외래
진료 수익률이 가장 높은 내과에 비해 단지 13%의 수익 밖에 거두지 못합니다. 그러면 장애
어린이를 위한 재활병원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장애어린이들이 갈 수 있는 병원이 줄
어드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은 장애어린이가정을 더욱 든든히 하는
지지대가 되겠습니다.



'따로 또 같이'는 푸르메재단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장애어린이 가정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장애어린이만큼이나 다른 구성원들에게도 관심이 필요합니다. (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여가활동을 위
한 '따로 또 같이' 행사에서 부모대신 장애어린이를 돌보는 자원봉사자의 모습)

장애어린이 가정은 걱정할 게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부담을 나눠 질 사람은 없는
것 처럼 느끼십니다.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은 적극적인 가정 지지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
을 더욱 든든히 하는 병원이 되고자 합니다.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치료 서비스 뿐
만 아니라 치료 도우미 서비스, 가정복귀 훈련을 통해 장애어린이와 더불어 가정 구성원들
모두를 심리적, 육체적으로 최대한 돕고자 합니다.

푸르메어린이 재활병원

장애어린이가정을 돕는
어린이 재활병원을 짓겠
습니다.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은 맘 놓고 치료받을 수 있는 보호자 같은
병원입니다.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은 상담과 진단을 통해 생애주기별로 아이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부모님과 함께 고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은 팀 접근을 통한 전인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입니다. 아이의 상태에 맞춰 부모님과 함께 생애주기에 맞춘 치료 계획을 세우고 사회로 편안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재활 서비스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전문 의료진이 아이를 진단하고 아이에게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고 지역복지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 적응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호자 같은 병원이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의 꿈입니다.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은 장애어린이들이 사회로 나가는 데 필요한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장애어린이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장애어린이와 부모가 함께한 사회적응프로그램 '만지는 박물관')



적성과 능력을 찾아주는 직업 상담과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푸르메어린이 재활병원

장애어린이가정을 돕는
어린이 재활병원을 짓겠
습니다.

장애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건 치료만이 아닙니다. 그들 또한 자신의 미래를 걸고 꿈을 꾸는 우리 사회의 귀한 새싹들입니다. 그들이 사회와 소통하고 사회 속에서 당당히 자신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은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사회재활 서비스를 통해 아이들이 장애를 가진 채로도 사회 속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경제활동을 통해 진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적성을 반영한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짓겠습니다.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은 장애와 비장애 통합을 선도하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고정욱 동화작가와 함께한 “장애, 넌누구니?” 장애어린이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 (비장애어린이들의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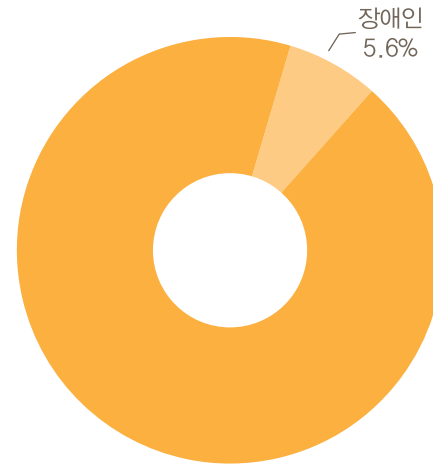
각자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더 풍성한 사회를 이루듯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서로의 특성을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접점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장애와 비장애의 통합을 선도하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푸르메어린이 재활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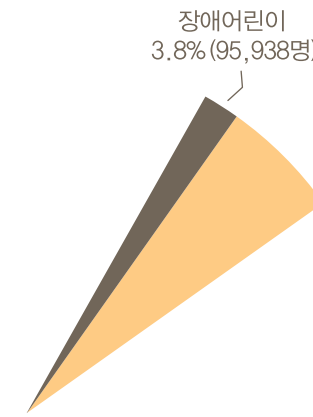
이래서 필요합니다.

등록 장애어린이 10만명
대한민국 장애어린이 백만명(추정)

■ 대한민국 장애인구 비율



■ 대한민국 장애인 중 19세 이하 어린이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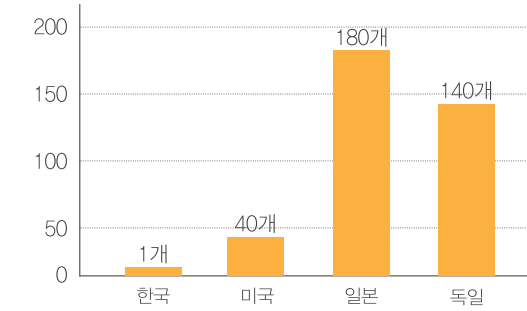
◀ 통계상 장애어린이는 약 10만명, 하지만 나아지리라는 기대로 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를 다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 (밤벨연주를 하는 장애어린이 연주단의 모습)

2011년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19세 이하 장애어린이는 95,938명으로 전체 장애인구의 3.8%가 됩니다. 하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는 장애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믿고 싶지 않거나, 혹은 시간이 지나면 상태가 나아질거라 기대하면서 등록하지 않으시는 부모님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적게 잡아 약 10%가 장애등록을 했다고 가정해도 현재 대한민국에는 약 100만명의 장애어린이가 있을 거라고 추산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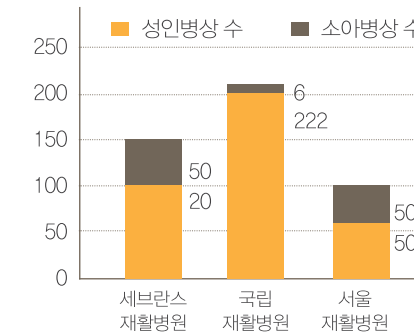
푸르메어린이 재활병원

이래서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들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 더 필요합니다.



사회의 미래를 약속하는 어린이들. 장애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는다면 건강을 되찾고, 세상에 적응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중한 아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어린이 재활병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장애어린이를 치료하던 병원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린이 재활병원이 부족한 이유는 수익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환자는 어른에 비해 인원이 적고, 진료수가가 낮은 반면 재원일수가 길어 수익대비 인건비의 비율이 높습니다. 게다가 진료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진료의 난이도가 높으며 사고의 위험도 높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을 망설이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환경을 탓하며 포기하기에는 장애어린이들에게 전문 재활치료가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푸르메어린이 재활병원

이래서 필요합니다.

어린이재활병원이 무엇일까요?

기존 의료기관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어린이질환에 대해 전문적인 의료를 제공하는 병원입니다. 어린이들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들이 자립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복지시설이지요.

어린이재활병원, 왜 필요할까요?

■ 어린이는 어른과 다릅니다.

한참 성장하며 배워야하는 어린이는 어른과 다릅니다. 성장단계와 장애유형에 따른 다양한 치료와 교육이 제공되어야만 향후 사회구성원으로서 무리 없이 사회에 진입하여 생활할 수 있습니다.

■ 조기치료의 효과는 월등합니다.

시의적절한 치료와 재활은 신체의 기능을 회복하고, 잔존 기능을 최대한 끌어올려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치료시기가 빠를수록 10년, 20년 후의 삶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 미래의 사회적 비용을 줄여줍니다.

가정이나 시설에서의 장기요양으로 인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그 가족의 스트레스 및 보호부담을 덜어줍니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유로존 위기 극복의 핵심 인물인 독일 재정부 장관 미국의 아동전문 재활병원인 스코티스 라이트 병원 볼프강 쇼이블레



이제 생각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장애인들은 할 수 없는(disabled) 사람들이 아니라 장애라는 특성(character)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교육받고 사회에 적응해서 사회 속의 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사회를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대한민국의 귀중한 사회적 자원입니다.

이제 장애인에게 소극적인 '지원'이 아니라 적극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의 장애인들이 자기가 가진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대한민국 사회는 몇 %나 튼튼해질까요? 만약 장애인들이 직업을 가지고 사회 속에서 자신의 몫을 담당하게 되면 이전에 그들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되던 매물비용(-)은 사라지고 장애인들이 만들어낸 가치들은 사회적 소득(+)으로 남게 될 겁니다. 그 수치를 계산해보면 얼마나 될까요?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처럼 교육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그 능력으로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재활치료는 사회의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입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아이들이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포기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푸르메재단은 장애어린이들을 돌볼 수 있는 병원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요한 일은 어떻게든, 누구든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푸르메어린이 재활병원

이래서 필요합니다.



넥슨의 자회사인 퀴드디멘션스의 이철재 대표

푸르메어린이 재활병원

같은 꿈을 꾸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은 한국의 이상적인 어린이 재활병원의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장애어린이가 가정에 보호자 같은 병원
- 지역사회로 나가는 징검다리 같은 병원
- 장애와 비장애 통합을 선도하는 병원

장애어린이들이 제때 필요한 치료를 받고 사회 속의 당연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부모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는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어린이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전 사회의 책무이며 또한 사회에 성과를 남기는 적극적인 투자입니다.

우리는 꿈을 꿈니다.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이 지어지고 하나 둘 장애어린이의 자립을 위한 재활시설들이 뒤를 이어 생겨나고 잘 교육받은 장애인 친구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 더 밝혀주는 꿈을 꿈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2013년에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늘 그랬듯이 저희와 함께 걸어 주실거죠?